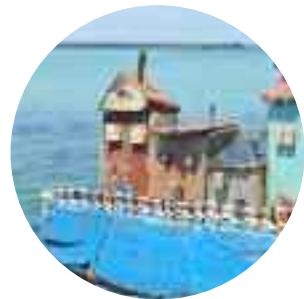


삼	과
문	화



contents



표지 이야기

4 이방인, 일그러진 이상향 고윤식(서양화가)

특집 I 꼼꼼히 들여다보는 업사이클

10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전, 서울새활용플라자

윤대영(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

26 생활예술로 거듭나는 업사이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34 제주에서 옴트는 업사이클

김지환(바다쓰기 대표)

예술과 사람

42 제주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무용가 김한결을 만나다

이아영(재단 '아트노크' 서포터즈)

담·담·담·담 제주의 추억

48 가시나물 가는 길

변종태(시인)

시·視·선·線 제주의 시선

56 100년 시간 여행, 제주오일장

강봉수(제주작가회의 이사)

리뷰

64 전시 행동하는 예술가- 고길천 개인전 《바라본다》

김연주(문화공간 양 기획자)

72 공연 예술공간 오이 연극 「SS」

한형진(제주의소리 기자)

76 문학 슬픔도 백 년 동안 - 故문충성 시인을 기리며

김동현(문학평론가)

78 영화 '제주여성영화제' 계절에 만난 영화들

간절히 내미는 '연대의 손길... '미투'의 징후들

이정원(본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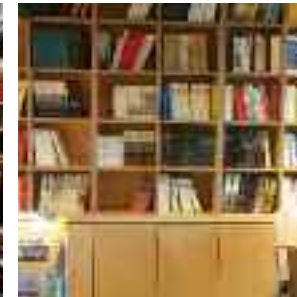
소식

88 옛 이아(二衙) 터에서 만난 '이아박스'

홍임정(제주작가회의 회원)

93 문화예술街

94 편집후기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삶과 문화 2018년 통권 71호 등록번호 제주마 01005호-ISSN 1599-5321 등록일 2002년 1월 4일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고경대 발행처 제주문화예술재단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이도일동) 전화 (064)800-9114 팩스 (064)800-9139 www.jfac.kr 편집위원 김동현, 김연주, 이정원, 좌은영, 현순실 편집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조정팀 디자인·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www.jf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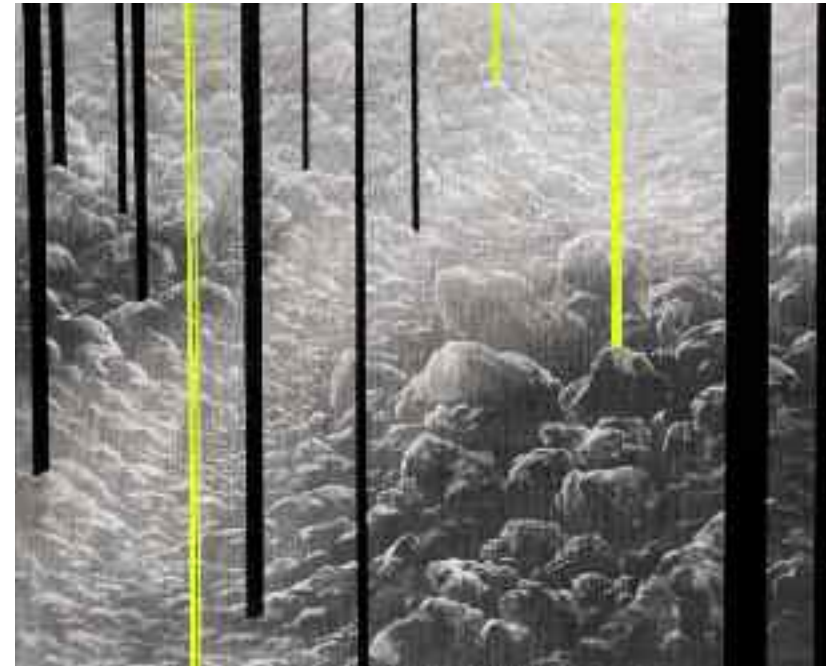
NE:UTOPIA part.2

이방인, 일그러진 이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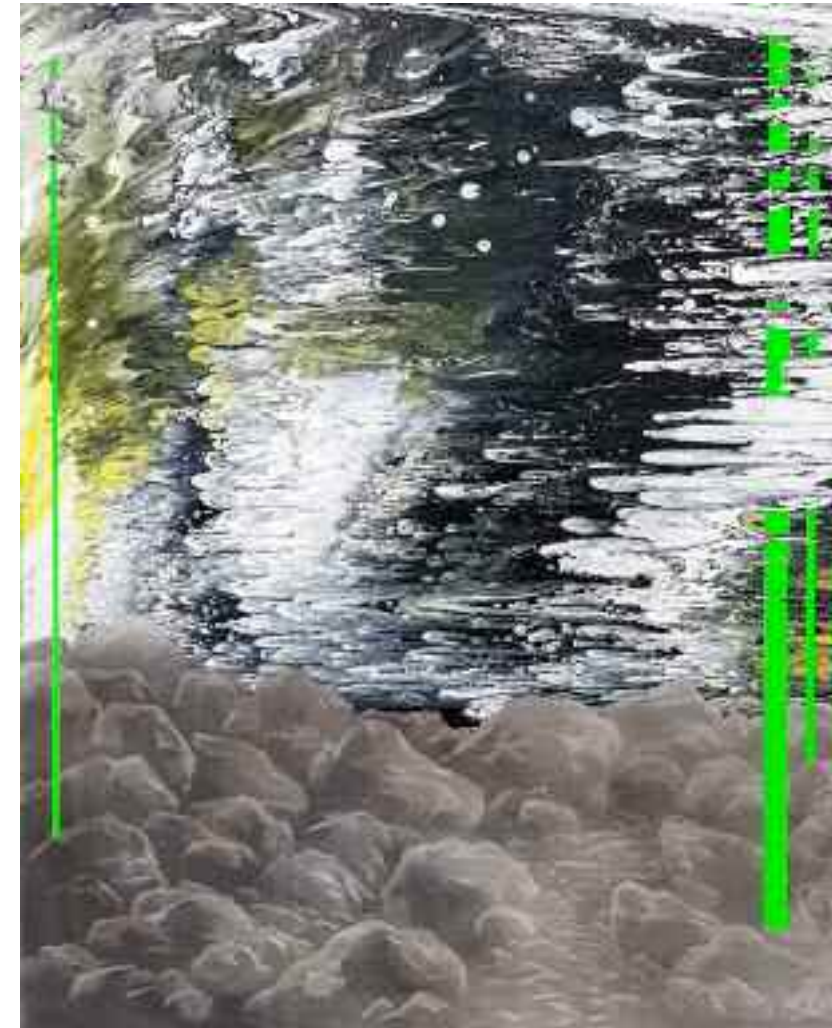
글 고윤식(서양화가)



「몽유도원 1」
162×97cm,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2018




01 「기억의 숲 1」 91×73cm, 캔버스에 아크릴·목탄, 2018
02 「Chaos 2」 60.5×73cm, 캔버스에 아크릴·목탄, 2018



기억의 파편을 한 조각씩 맞춰본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남겨진 기억의 조각들은 새로운 기억들로 기록된다. 다시 무너지고 재구성되며 맞춰지는 파편의 조각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당연히' 모순적 접근을 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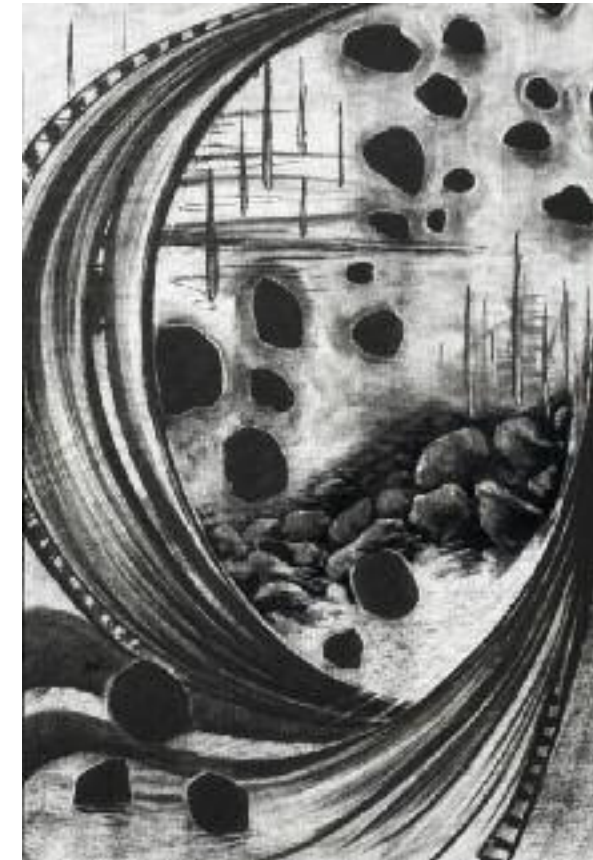
현재의 제주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문화적 혼돈기를 겪고 있다. 급격한 문화의 유입과 흡수는 제주 본연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의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빠른 문화의 유입과 변화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변화에도 단계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빠른 변화는 '본질'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고 '유행'이라는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흡수되고 있다.

환경오염, 교통대란, 사생활 침해, 허세와 과시욕 등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변화와 발전이라는 허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은 스며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의 모습을 잃고 빠른 속도로 그 속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진다.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내게는 한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마치 자연의 자정적 치유처럼 포장되어 당연하듯이 사람들의 머리에 세뇌되어 간다. 나는 이런 혼돈의 상황을 이방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진정한 이상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표류 1」
53×73cm, 캔버스에 아크릴·오일, 2018



「일그러진 이상향 1」
80.5×116.5cm, 캔버스에 오일·목탄, 2018



「일그러진 이상향 3」
91×116.5cm, 캔버스에 오일·목탄, 2018



「일그러진 이상향 2」
91×116.5cm, 캔버스에 오일·목탄, 2018



「일그러진 이상향 4」
91×116.5cm, 캔버스에 오일·목탄, 2018

특집 I

꼼꼼히 들여다보는 업사이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전 서울새활용플라자

글·사진 윤대영(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

서울은 왜 업사이클을 시작했는가?

‘업사이클’은 이데올로기다. ‘다운사이클은 안된다’는 의지와 선언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 공학에서는 폐기된 자원에 기계적 혹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자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재활용(리사이클)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활용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¹⁾이 재활용의 과정과 결과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이 있는가를 면밀히 따져본 결과, 리사이클이 실제로는 다운사이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20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겨우 2백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근본적으로 석탄과 석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동식물의 생명과 죽음을 땅속에 차근차근 저장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단 2백년

1) 2002년 펴낸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라는 책에서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미국의 건축가 William McDonough와 독일의 화학자 Michael Braungart.



2017년 9월에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재활용 분류 작업장과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소재은행, 업사이클 제조기 업과 상품매장, 전시장과 교육장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업사이클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01 탄소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사진 출처: 그린피스) 우리는 각국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확보와 경제활동이 부메랑이 되어 전 지구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업사이클은 이러한 환경 재앙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도전이다.

02 2018년 쓰레기대란 이후 서울시는 모든 공공건물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03 종량물재생센터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바라본 서울새활용플라자 전경. 실내외에 여유있는 공간이 많아서 교육과 야외행사를 하기에 수월하다.

만에 물 쓰듯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이 다 운사이클과 업사이클을 구분하는 결론에 이르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업사이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2018년 4월, 시민들의 삶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전국에 들 불처럼 번졌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업사이클을 트렌드로 강조하고, 개념 소비나 윤리적 소비라는 말도 도처에 넘쳐났다.

이미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시들해질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1995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20년이 넘었다. 민선으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쓰레기와 환경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공해 발령이 잦아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높아졌다. 미세먼지 공해가 핵 방사능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며 무서워하는 시민이 80%를 넘어섰다. 단순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1회성 캠페인만으로 넘어갈 호락호락한 시민들도 이젠 별로 없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업사이클이 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천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올해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로 쓰레기를 수출하지 못해 대란을 겪었다. 스웨덴은 쓰레기 매립율이 1% 정도이다. 스웨덴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점차 줄어들어 오히려 연료용으로 쓸 가연성 쓰레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²⁾ 업사이클이 선동적 캠페인이나 실천 없는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쓰레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부터

2) 스웨덴은 2014년 한 해 동안 약 270만 톤의 쓰레기를 주로 영국에서 수입하여 에너지 생산에 사용했다.

시작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적 정책만으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쓰레기제로(Waste Zero)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었다.

서울시가 399억 원, 환경부가 100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성동구 용답동에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러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의 결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면적 16,530㎡, 부지면적 6,943㎡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업사이클의 대표적인 시설이자 상징이 되었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은 어떻게 다를까?

'서울새활용플라자'라는 시설과 사업 속에는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원, 즉 소재와 노동의 방식을 선택하는 지점에서 생산과정, 유통과 소비과정,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버려지는 에너지와 소재를 최대한 줄이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앞 잔디광장에 철제 파이프와 플라스틱 호스로 만든 조형물 'LOOP UP'이 설치되었다.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상징하며 밤에는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공연도 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사용되고 버려진 자원이 다시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서울의 의지가 담겨있다.

생명의 근원 '물'을 살리는 물재생센터 안에 세워지다

장한평은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유명하고 고미술상가가 밀집한 답십리와 가깝다. 중고자동차나 골동품이나 모두 오래된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곳은 리사이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뿌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약 26만 평 넓이의 중량 물재생센터³⁾가 장한평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와 인간 생명의 근원인 물은 우리가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분노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이다. 과연 우리가 빨래하거나 청소하는 데 쓰고 버린 물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 분노와 함께 버려진 물은 어떻게 처리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가 강에서 채취하여 정화하여 먹는 수도물 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 생물들이 먹고,

3) 서울 동부지역 14개 구에 살고 있는 약 4백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쓰고 버린 생활하수와 분뇨 150만 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미생물처리 방식으로 정화된 후 한강으로 방류된다. 서울시는 생활하수의 재생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서울하수도과학관을 세우고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생수 물병뿐만 아니라 소금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⁴⁾ 물재생센터에서의 물 재생과정은 '물'이라고 하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통해 총체적으로 인류문명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업사이클 운동을 위해 세워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물재생시설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더 폭넓게 리사이클을 생각하게 하며, 서울하수도과학관과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업사이클의 과제를 산업 현장에서 찾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준비에 착수한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2년 동안 업사이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여 업사이클과 소재에 대한 2권의 기초적인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⁵⁾ 연구목적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업사이클 산업의 현황과 본질을 파악하고, 디자인과 업사이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업사이클 상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업사이클 상품으로 손꼽히는 스위스의 프라이탁을 살펴보자. 프라이탁의 품질과 가격은 가히 업사이클계의 명품이라고 불릴 만하다. 우리나라 업사이클 기업이 프라이탁과 같은 생산 유통체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공장경비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판매관리비와 광고비 등이 더해져 매출원가가 되고, 기대수익을 더하면 매출가격이 결정된다.⁶⁾

먼저 업사이클 제품의 재료비를 생각해보자. 프라이탁은

유럽의 화물 기사들이 5년 이상 사용하고 버리는 트럭의 덮개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탁의 성공 비결에 일반 제조기업과 다른 점이 있을까? 프라이탁 제품의 재료가 재활용 자재라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혹은 업사이클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드라마틱한 제품 스토리가 그들의 경쟁력일까?

업사이클 상품이니 재료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프라이탁은 1년에 타폴린 방수천막 200톤, 자전거 튜브 7만 5천 개, 차량용 안전벨트 2만 5천 개를 원재료로 확보해야 한다. 프라이탁이 사용하는 트럭의 방수덮개는 하나의 공장에서 일괄 생산되어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 유럽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송트럭을 추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사들만 별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급적 상태가 좋은 재료만을 수거하는 방식을 쓴다.

이런 특별한 원재료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확보한 원재료를 세탁, 가공하는 과정에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므로 결국 일반 기업에 비해 재료비가 싸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재료의 확보과정만 일반 기업과 다를 뿐, 가공 노동비나 공장경비, 판매관리비와 광고비 등은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

제품의 원료 확보에서부터 생산공정, 재고관리와 매장관리, 광고와 고객관리까지 일반 기업의 성공 교과서를 따라가지

4) 2018년 3월 미국 뉴욕주립대 미세 플라스틱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에비앙 등 전 세계의 250개 생수를 조사한 결과 93%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그린피스와 인천대 해양학과의 공동조사 결과, 6개 대륙 21개 국가의 39개 소금 브랜드 중 36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금 오염도가 가장 심하여, 인도네시아 천일염은 1kg당 1만 3천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고 한다.

5)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연구』, 2016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재활용 소재은행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7년.

6) 업사이클 제품 생태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프라이탁의 원가명세서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안타깝게도 프라이탁 측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아 알기 어렵고, 단지 추정할 뿐이다.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스토리가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라서 마니아 층이 꽤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착한 소비'와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일반 명품 브랜드가 구사하는 '부유한 충성 고객 지향 마케팅'보다 얼마나 더 강력할 수 있을까?

기업은 수익창출을 위해 생산과 판매 전 과정에 최소자원 투입과 최대자원 산출을 추구한다.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꾀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생산과정에서는 원자재 규격 균질화, 생산시설 효율 고도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고, 판매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광고 매체를 택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며 판매량을 늘려나간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을 두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해온 전통적이고도 확실한 방식이었다. 업사이클 기업이라고 해서 이 같은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업사이클 기업이 균일한 품질의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생산에 투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제조원가 공정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도 약 300여 개의 업사이클 기업들이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교육과 사회적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반기업과 경쟁할 만한 대량생산 체제와 원가절감 루트를 확보하지 못한 업사이클 기업은 저가노동에 기반을 둔 임가공업체와 도시의 가내수공업에 의존하여 저가의 소량 공예품을 생산 판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품 기획과 디자인이 훌륭해도 원료 재가공 과정이나 생산 공정이 노동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가성비는 떨어지게 된다.

2017년 5월부터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를 시작한 40여 개의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기업들은 이 분야 업종 간의 교류와 대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업사이클 기업의 과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업사이클 문화의 확산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수 있는 '리&업사이클플라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자원재활용센터나 공공시설 혹은 기업의 매장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의류와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손쉽게 수리하고 새로운 업사이클 제품 제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424개 동별로 특색있는 리&업사이클 공간이 단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업사이클 산업 제조와 유통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사람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 쓰레기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이 투입된다면 문화를 확산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더해졌다.

7)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의 업사이클을 기획하고 연구 및 교육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지역별 리&업사이클플라자는 시민들이 생활용품 수리와 업사이클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공간 운영은 전문 업사이클 기업이 맡게 될 예정이다.

건립과정에 제기된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시민참여 체험과 교육 등의 공익적 사업, 업사이클 기업 육성과 연구 등의 경제적 사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사업 등 세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업사이클 사업의 최대 공익은 시민참여와 교육이다

업사이클 혹은 새활용이라는 용어를 애써 보급하고 교화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시민사회 역량이 성숙하여 이미 서울은 자원 순환사회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서울 대학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유기농장터 '마르쉐', 양평 문호리와 지방 곳곳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리버마켓', 서울 압구정동과 성수동 등지에서 열리는 '명굴시장' 등은 무한 질주로 달려온 대량소비사회의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으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시중의 상품보다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생산한 좋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직거래하겠다는 시민들의 취향은 곧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 철학과 일치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개관 당시부터 문호리 리버마켓 참여자들을 초청하여, 시민들의 바른 먹거리 유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범장터를 총 여덟 차례 개최했다. 요즘은 규모를 축소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주제를 바꾸어가며 의식주 분야의 업사이클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업사이클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미래형 공익사업 분야이다. 산업 정보화와 스마트 농업 등의 과학 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변화 속에, 도시재생과 노동 상생

04 2017년 9월 이후 문호리 리버마켓이 참여하여 열린 '새활용 토요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연간 10만 명이 넘는다.

05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로비에 마련된 '어린이 새활용마켓'에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져온 물품을 팔고 있다.

06 2018년 9월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열린 자동차해체소에 5백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자동차 해체과정을 통해 제품 설계와 사용 시 수리 편의성과 폐기물 처리과정을 생각하도록 하는 디자인 해부학 프로그램이다.





07

09



08

07 서울생활용플라자 1층에 있는 창작LAB '꿈꾸는 공장'은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새로 만들어진 14개의 메이커 스페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동·하계 캠프와 실습 체험 장소로서 서울형 메이커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사진 제공: 서울시교육청)

08 서울생활용플라자 1층에 있는 창작공간 '꿈꾸는 공장'에서 참가자들이 자기가 만든 업사이클 모형자동차로 경주대회를 열고 있다.

09 '꿈꾸는 공장'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디자인재단의 MOU 체결로 2019년부터 메이커 체험교육과 장단기 캠프를 공동 진행하게 된다.

서울생활용플라자에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거나 그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재활용 메이커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은 미래의 일자리를 모색하고, 은퇴자와 경력단절자들은 업사이클 산업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으로 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메이커들을 위한 창작LAB '꿈꾸는 공장'에서는 레이저커팅기와 CNC 기계, 목공기 등 10여 종 50여 개의 장비를 갖추고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곳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서울지역 초중고 학교의 메이커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교사 교육과 연구의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관 이후 1년 동안 총 7백여 회 2만 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견학, 체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여하였고, 방문객은 모두 10만 명을 넘어섰다.

자원이 100% 순환되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은 스스로 의식주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협동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커뮤니티 참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2019년에는 어린이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총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업사이클 교육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진로모색과 구직활동을 돕게 될 것이다.

서울의 업사이클 경제 인프라로서 기업을 육성하고 연구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한 달에 약 10톤의 원두커피 자루를 사용하여 2만여 개의 패션소품을 만들어내는 '하이사이클', 청바지를 잘라서 모자와 가방을 만드는 '이스트인디고'와 '젠니클로젯' 등 패션 소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1주일에 5톤의 자동차 가죽시트를 사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모어댄', 한 해 약 5만여 개의 빈 병을 압착하여 예술품을 만드는 '글라스본', 한 해 6천여 개의 고장 난 우산으로 방수지갑과 파우치를 만드는 '큐클리프' 등 제조기업은 품질 수준이 높아 전국 범위로 교육과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과 환경

10 입주기업 '젠니클로젯'이 만든 청바지 가방. 자기가 입던 청바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스토리를 상품판촉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스위스 프라이탁의 출발점과 유사한 사례이다.

11 입주기업 '하이사이클'이 원두커피 자루와 호텔 욕실용품 등으로 만든 애견용품은 업사이클을 통해 반려견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개념의 업사이클을 확산시키고 있다.(사진 제공: 서울디자인재단)

12 2018년 9월 주한 덴마크 대사과 칼스버그 그룹 회장, 덴마크 리사이클 센터장이 방문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들과 업사이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토론했다.

13 2018년 10월 아랍에미리트 환경부 장관 일행이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업사이클 상점 '수퍼마켓'과 입주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상품제조와 유통 과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동안 업사이클 기술과 문화에 관심이 적었던 중동 국가들의 서울새활용플라자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10



11



12



13



14



15

14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 1층에 개관한 '소재은행'은 전국의 재활용품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찾아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목재 등 400여 개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와 실물을 갖추고 있다.(사진 제공: 서울디자인재단)

15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 1층 '소재은행' 입구에 설치된 소재 라이브러리에서는 방문하는 학생들이 자원순환 기본법에 분류된 180가지의 폐기자원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다.

시설과 사업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에서는 매일 20여 톤의 재사용 물품들이 분류되어 중고가게로 공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버려지는 가죽, 의류 소재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사이클 기업 '에코파티 메아리'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업사이클 기업 상품의 대다수를 판매하는 전문 매장 슈퍼마켓(SUPER Market)도 새로 개장해 시민들의 상품 선택 폭을 넓혀주고 있다.

업사이클 기업과 창작자들을 돕는 최고의 인프라는 '소재은행'이다. 업사이클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소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소재은행'은 플라스틱, 유리, 가죽, 섬유, 목재와 기계부품 등 재사용할 수 있는 400여 종류의 소재 샘플을 갖추고 디자이너와 시민들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고

관련 기업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 2018년에는 덴마크의 칼스버그 그룹 회장과 업사이클 센터장,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도시계획 책임자, 아랍에미리트 환경부 장관 등이 다녀갔다. 외국인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의 재사용작업장과 소재은행, 창작LAB인 꿈꾸는 공장과 입주기업의 상호연결 성과에 놀라며, 서울의 방문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있다. 수시로 제품의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소재 해체 워크숍과 소재 사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전문적 업사이클 기술을 교육한다.

업사이클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은 원재료 제작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과 에너지를 소모한 이력이 있는 양질의 자원을 제품 제조에 재사용함으로써, 이미 환경문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경제적 활동만이 전부가 아니다. 업사이클의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시작된 업사이클 사회적기업 '테라사이클'은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초등학교생들이 모아준 2만 5천 개의 칫솔을 화분으로 만들어 되돌려주었다. 이처럼 캠페인과 교육과정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16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로비와 실외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새활용장터가 열린다. 의식주 생활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가는 시민참여 행사로 매주 주제와 참여자가 바뀐다. 입주기업들에게는 새롭게 개발된 상품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17 입주기업 '어미갤러리_끼리끼리'의 양말공예품. 세탁과정에서 잃어버린 한 짝의 양말을 사용해 인형극에 사용되는 소품을 만들고, 동화를 구현하는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업사이클 융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8 입주기업 '인라이트'은 전국의 고장 난 무선진공청소기를 택배로 접수하여, 배터리를 수리한 뒤 정상제품으로 되돌려준다. 1년 동안 수리한 1만 4천 대의 청소기가 플라스틱 폐기를 자연시킴으로써 나무 12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가져왔다.



16



17



18



19

19 입주기업 '쉐어라이트'에서 개발한, 촛불로만 4시간 동안 LED를 밝히는 업사이클 조명기구. 소외·재난지역 어린이들에게 공급된다.



20

20 입주기업 '플레이31'의 치유적 미술활동 도구 '구름도장'. 업사이클이 소재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아픈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휴먼 업사이클'의 영역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배터리만 고치면 쓸 수 있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수리하는 일에서부터 창업한 '인라이트'은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공동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사회적 활동으로 전자제품 클리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쉐어라이트'는 LED 불량 제품과 열전도 소자를 사용하여 소외·재난지역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들은 동티모르 등 10여 개 내전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어린이들이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명기구를 제공하고, 해외 원조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탄자니아에 물 살균기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실되는 촛불의 열과 빛으로 LED를 밝혀 제3세계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LED 물 살균기로 저개발국가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살려낸다는 의미에서 '재난디자인'이자, '휴먼 업사이클'이라 할 만하다. '플레이31'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교육용 키트를 개발하는 디자인기업이다. 이들은 치매어르신들이 그림으로 인생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활력을 되찾게 하는 치매약화지연 제품 '구름도장'을 출품했다. 후원기업과 공동으로 치유와 회복의 업사이클 융합제품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업사이클로 의식주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과 하천과 바다의 오염, 쓰레기 매립지가 날로 늘어나는 현재의 지구 환경은 절망적이다. 최근 발표된 <2016년 전국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2톤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⁸⁾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아직도 이러한 해양 투척이 쓰레기 처리방법 중 하나로 통계에 잡히고,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 및 군사적 환경 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가와 사회 간에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너무도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생활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8) 한국폐기물협회가 집계한 2016년 전국 폐기물 현황 중 해양 투척은 총 92.2톤인데, 그중 전북의 폐수처리오니 11.4톤을 제외하면, 제주 56.6톤, 경남 16.6톤, 강원 5.9톤 등의 해양 투척 쓰레기들이 모두 동식물성 잔재물들이다.

기술과 디자인을 더한다면, 느리고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소박한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여 순환되지 않고 버려지는 자원의 양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생활용플라자는 다음과 같이 소박하게 의식주 세 분야에서 업사이클 연구와 시민참여 사업을 계속해나갈려 한다.

의생활에서 업사이클을 실천한다

2018년 9월에 열린 서울생활용국제컨퍼런스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생산 유통체계에서의 폐기물 감축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출신 패션 디자이너 리트 아우스(Reet Aus)는 패션 봉제 공정에 IoT기술을 접목하여 자투리로 버려지는 원단을 최소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패션 봉제업계에도 지속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한 중소기업이 버려지는 폴리에스터 의류를 부직포 제조 공정에 투입하여 대형프레스로 눌러서 만든 재활용 패넬 개발에 성공했는데, 건축자재로서 강도도 뛰어나고 재활용 가능성도 뛰어나 앞으로 대량생산 방법을 연구해볼 만하다.

옷을 하루에 한 번만 입고 버리라고 유혹하는 다국적 SPA 브랜드 제품의 홍수 속에서 생활한복 몇 벌로 4계절을 버티며 윤리적 소비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업사이클 운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보다 기술적이고 디자인적인 방법을 통해 의생활의 구체적 업사이클 사례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식생활에서 업사이클을 지향한다

2018년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섰다.⁹⁾ 늘어나는 도시인들의 수에 정비례하여 음식물 포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음식물 폐기물도 늘어나게 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물도 소단위 포장이가어나고 도시의 마트와 편의점 숫자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적정 기간 동안 식자재를 보관하여 신선한 적정량의 음식만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보다 면밀한 식자재 유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나노화학 기술을 사용한 저가의 칩을 음식물 포장재 내부에 부착하여 유통기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독일의 벤처기업이 나타났다. 데이터 관리와 사용의 보안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쉽게 시장에 적용하기가 어렵긴 하나, AI와 IoT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꾸준히 해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를 판매하는 전자회사나 건설 및 유통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개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생활용플라자의 식생활 서비스 연구가 업사이클 주택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주생활의 혁신이 업사이클을 완성한다

사람들은 잠자고 일어나서 노동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내일을 위해 잠을 자는 일상을 반복한다. 집은 인간 문명과 역사를 유지시켜온 근원과 같은 곳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주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상품들이 지구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재료의 저렴한 공급처를 끝도 없이 찾아 지구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지구 밖의 다른 별에까지 탐사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도 모두 행복한 집에서 편히 쉬고자 하는 인간의

9) 2018년 10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1968년 36.8%에 머물던 도시 인구가 2018년 81.5%로 늘어났다.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발생한 하루 폐기물 415,345톤 가운데 건축폐기물은 절반에 이른다. 통계상으로는 이들 건축폐기물의 90%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인매립지와 같은 합법적인 매립지를 피해 은밀한 불법매립지를 찾아 유명처럼 떠도는 대형 트럭들의 존재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¹⁰⁾

건축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사례를 보자. 정부가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에 지은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은 6개월 만에 시공되었고, 행사가 끝나면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듈러공법의 건축물이었다. 이는 완공 전부터 학교와 호텔, 지자체 공공시설 용도로 분양되어 해체 이동하기로 계약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필요에 의해 집을 짓고, 필요가 사라지거나 수명이 다하면 집을 허무는 일을 반복해온 우리 사회는 에너지를 절감 또는 순환하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순환이 가능한 주택 시스템을 경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면, 건축폐기물 매립량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의식주 분야는 인간 삶의 조건인 동시에 문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업사이클의 과제를 추상적인

10) 어마어마한 건축폐기물의 양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하게 수입된 저가 건축자재 속에 함유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소각 또는 매립되어 더 큰 피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무역업을 친환경적으로 규제하는 업사이클 법규와 처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실적으로는 적게 버리는 옷, 적게 버리는 음식, 적게 버리는 주택자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업사이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곳에서 찾지 말고 구체적인 의식주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도시와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혁신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서울생활용플라자의 당면한 과제이다.

업사이클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도전이다

서울생활용플라자의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의 업사이클의 이론과 실천 모두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지탱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는 너무도 견고하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 가려면 생산과 유통, 소비와 재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고도의 기술과 창의적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동육아, 공동거주, 시민공방, 지역화폐, 마을학교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자는 의지가 지역 곳곳에 넘쳐난다. 이러한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업사이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멈추지 않는 물질소비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 자원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업사이클의 철학과 기법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공급되고 사용될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꿈도 한 걸음씩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생활예술로 거듭나는 업사이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글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최근 업사이클이 전국적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사이클은 하나의 대안으로 개인과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국내 최초 업사이클 기관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고 업사이클 문화를 선도하는 롤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시작은 업사이클 이전에 도시재생이었다. 광명시가 학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3개 지자체에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 광명시도 선정되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단의 자문과 지역의 스토리를 감안하여 '업사이클 전문공간'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국내 최초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그것이 천운이었는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사실 업사이클이란 용어는 사용된 지 얼마 안 됐다. 아직 정확한 개념 확립이나 학문적 연구가 이뤄진 것도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한다. 센터가 문을 연 2014년에는 더욱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 있는 주제였다. 미래에는 누구나 실천해야만 하는 생활 철학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풀어나갔다. 특히 업사이클은 리사이클과 혼동하기 쉽다. 이 때문에 이 두 개념을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 재생의 개념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의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문화적·예술적 가치 창출에 기획의 방점을 두었다.





그런 이유로 센터의 명칭에도 '예술'을 넣었고, 프로그램도 예술과 교육 영역으로 확실히 구분 지었다.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즈음,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건물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 건물에 내용을 맞추는 형식인데, 광명시의 경우는 미리 총괄기획자를 선정하여 충분한 콘텐츠를 구성한 후 담을 공간의 디자인이 진행된 사례였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적었고 케도에 오르는 데 시간이 절약되었다.

많은 문화재생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구성과정이다. 공공기관, 특히 정부기관의 건물 조성은 공간의 취지나 내용을 모르는 시설직 공무원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하드웨어에만 집중하여 건물을 짓는 형태이다. 이때문에 공간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고용한 후에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심지어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01 업사이클아트센터 전경
 02 업사이클아트 교육센터
 03 버려진 장난감으로 탄생한 천근성 작가의 '코뿔소', 장난감을 주제로 한 「토이스토리展」의 일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도 광명시 지자체 사업이므로 조성과정에서 의견조정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려는 자와 막는 자, 규정을 주장하는 자와 실리를 주장하는 자,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 디자인이 중요한 사람과 효율성이 중요한 사람, 모두 각자가 이유와 명분이 있었으나 중간에서 잘 조정되어 큰 차질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50여 평 규모의 홍보동리 모델링에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형태와 넓은 전시장으로 인해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광명시가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을 하나 더 짓기로 하고 동시에 공사를 시작했다. 건축 설계를 담당한

마스터 플래너는 2014년 BBC가 선정한 아름다운 미술관 8개 중 하나로 뽑힌 양주시 시립미술관 '장욱진 미술관'을 설계한 로랑 페레이라가 맡았다.

그는 외부와 내부의 소통, 무거움과 가벼움의 혼재, 공간과 공간 간의 막힘 없는 연결이라는 콘셉트로 투박하지만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으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교육센터를 디자인했다. 건축 공간은 단순히 기획자의 아이디어로만 이루어질 수도, 건축 설계자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복합적인 유기체이다. 건물을 사용하는 시민과 기획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그 아이디어를 실제 공간으로 구현해 내는 설계자의 의견이 합쳐지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 예술 공간은 더 그렇다.

이런 정신을 담아 드디어 2015년 6월 12일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 전문 기관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탄생한 것이다.

광명시는 서울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크다.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형 기업들이나 주변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돌아가는 곳으로 주거시설 외에는 별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KTX 광명역과 이케아와 같은 대형 유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생활 수준과 문화 수요는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광명시에 예술 문화 활동 커뮤니티 생성이 가능한 문화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생활 예술 공간이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의 의미가 매우 컸다.

그렇게 개관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2018년 하반기까지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핫한 공간이 되었다. 물론 광명동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과 함께 있어 그 덕을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업사이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 의미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미디어나 단체들,



04



05

04 진로에 대한 고민과 환경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건축이나 디자인과 업사이클을 접목한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3회째로 열린 에코건축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05 올해 상반기에 열렸던 '패션의 완성! 업사이클 展'의 모습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2018년 2월 새롭게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보다 새로운 분위기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06 업사이클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업사이클 컨퍼런스 스케치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많이 찾고 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전시, 교육, 축제나 세미나 등으로 업사이클 주제 아래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이다.

본관 전시장에서는 매년 2회에서 3회 새로운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열고 있다. 이는 시민들과 관람객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업사이클이란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놀라운 아이디어로 창작된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다 보면 관람객들은 어느새 버려지는 물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시 기획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일종의 업사이클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관에서는 거의 매일 시민들을 위한 업사이클 DIY 디자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전시가 홍보 목적이라면 교육은 직접 업사이클을 체험하고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

재료도 광명시 자체 내에서 조달하고 강사도 지역 동아리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민이 시민을 가르치는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모델을 만들고 있다. 지역에 업사이클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다음 세대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아이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새로운 발상으로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건축디자인 수업, '에코건축학교'와 아이들 스스로 업사이클 악기를 만들어 직접 공연까지 무대에 올리는 '리플레이 메이커', 새로운 재료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스쿨' 등이 있다. 아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게,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제를 풀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와 이웃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체득하게 된다. 벌써 해를 거듭하면서 시즌 4를 이어오고 있으며, 언니를 따라 다음 해에 동생이 참여하는 등 대를 이은 팬 층이 생기기도 하였다.



06

이 밖에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공모전 등을 통해 업사이클 작가들을 지원하고 각종 업사이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업사이클 예술 장르는 아직 생소한 분야라 딱히 업사이클 작가라고 스스로 명명하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신진 작가들에게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회를 주고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뼈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가진 재능을 시민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가들을 강사로 채용함으로써 작가들을 위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센터에서는 업사이클이라는 주제가 살아있는 독특한 공연들이 시즌에 맞춰 열고, 업사이클의 이슈를 다루는 키퍼런스 등을 열어 업사이클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도 빼놓을 수 없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미션이다. 인근 대형 외국기업 매장 이케아와 1년

여간의 협의 끝에 매장에서 반품되었거나 팔기 어려운 제품들을 받아서 이를 업사이클 작가들이 새롭게 탄생시켜 지역 아동센터에 기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 업사이클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업사이클 정신의 실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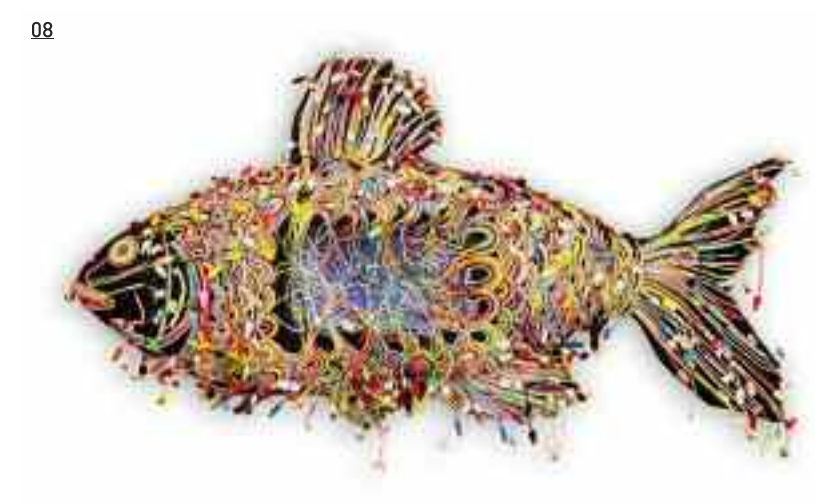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사이클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사이클 문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지난 2016년 7월 광명시는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에 당선되어 교부금 5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동안 예술과 교육을 통해 다소 생소한 업사이클의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 그 산업적인 가능성에 투자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 산업클러스터를 지을 계획이다.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업사이클 문화에서 산업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국내 업사이클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업사이클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는 동안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업사이클 기관들을 만들었고 이제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간의 콘셉트에 맞게 업사이클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자자체와 기관들이 갑자기 업사이클을 한다고 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업사이클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업사이클 분야는 늘어나고, 성장하고, 거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선순환 구조와 정방향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기관이나 주체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던 때에는 네트워크나 파트너도 없이 홀로 열심히 달려야 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업사이클 센터를 세우고 또 세우려고 하는 지금은 서로 공조하면서 정보와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진정한 업사이클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때이다.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업사이클을 아는 사람과 업사이클을 모르는 사람으로. 업사이클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버릴 것을 다시 보고, 자연을 다시 보고, 환경을 다시 보고 이웃과 사회를 다시 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런 삶의 태도가 업사이클을 통해 확산된다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공간으로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

- 07 버려지는 페너무나 페파레트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소품이나 소가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나무로 업사이클)
- 08 잉어잉어(천근성 작) 아이폰 케이블
- 09 작가를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작가들이 시민과 소통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



제주에 옴트는 업사이클

글 김지환(바다쓰기 대표)

반복적인 일상이 이어지던 2013년 어느 날이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3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2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무기력한 몸으로 TV를 켜자 우연히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나의 제주 생활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단 두 달 만에 회사를 정리했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내려왔다.

TV 뒤에 가려진 제주

우리 가족은 몇 달간 TV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제주에 흠뻑 빠져 살았다.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옥빛 바다가 펼쳐졌고 골목엔 아담한 돌담이 정겹게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이라도 할 겸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

는데 평소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이 눈에 펼쳐졌다. 쓰레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바닷가에 나가면 부표나 페트병, 그물이 쌓여있고, 골목에는 담배꽂초와 가정에서 버린 각종 생활용품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몇 달 만에 갑자기 제주가 낯설게 느껴졌다. 더 이상 TV에서 보던 제주가 아니었다.

갈 곳을 잃은 제주의 쓰레기

2013년 11월 우연히 뉴스에서 제주관광객 1,000만 명 돌파 소식을 접했다. 땅이 8배나 큰 하와이를 제치고 연간 1,000만 관광시대를 먼저 연 것이다. 연일 축하한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일부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도 추진됐다. 5년이 지난 2018년, 지난 9월에 이미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2006년만 해도 제주관광객은 내국인 530만 명, 외국인 46만 명으로 총 580만 명에 그쳤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뒤인 2016년에는 내국인 1,585만 명, 외국인 36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덩달아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06년 580t에서 2018년 1,286t로 급증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읍·면 지역마다 매립장을 설치했던 제주도는 섬 곳곳에 총 29곳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다. 현재 20곳은 운영이 종료되고 9곳이 남았지만 이마저도 언제 포화 상태에 이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봉개매립장과 동·서부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소각재, 사업장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매립장이 가득찬 만큼 해결책을 내놓은 건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 계획도 오리걸음

인 건 마찬가지였다. 자원순환을 목표로 진행된 제주시 고�형연료(SRF) 생산 역시 당초의 농공단지 내 열에너지 활용 계획이 이뤄지지 않아 육지로 반출됐고, 4만 700t은 매립장에 쌓였다.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친 자원순환으로 고�형연료 도의 반출비용만 82억 원에 목재 반출 28억 원까지, 100억 원 이상이 제주도 쓰레기 도의 반출 비용으로 지출됐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했다. 우리가 제주로 이주한 2013년 여름만 해도 해안가에선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엔 커피컵이 발견되지 않는 해안가를 찾기 어렵게 됐다.

해양수산부 집계 결과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6만 9,129t, 2016년 7만 840t, 2017년 8만 2,175t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제주도만 살펴보면 2015년 1만 3,283t, 2016년 5,403t, 2017년 1만 714t으로 연평균 8,800t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이 약 2만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수거량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였다. 2015년 기준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약 40억 원 이상이 소요됐으니 앞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제주 해안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제주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품목별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523t으로 고철류 160t, 종이류 112t, 플라스틱 32t, 캔류 14t, 병류 13t 등이다.

문제는 제주도 인구수나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활용품 발생이 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불과 5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꽂이가 담긴 유리병,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들은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버려지는 가치를 되살리다

인간이 쓰레기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산업혁명 이후부터다. 기계가 생겨나고 대량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는 늘고 쓰레기는 쌓여갔다.

당시 이 문제를 주목한 집단은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의 작품은 정크아트(junk art)라 정의되었다. 시대가 흘러 1970~1980년대에야 업사이클링(upcycl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쓰레기 문제를 예술적 접근을 통한 계몽운동에 그치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업사이클링은 디자인(design)에 주목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뛰어넘는 '세련됨'이었다. 조금씩 시장은 커져갔고 버려지는 트럭뿔개는 가방으로, 깨진 유리병은 액세서리로 변신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2007년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한 '에코 파티 메아리'를 시작으로 업사이클링이 퍼져나갔다. 2014년 68개 브랜드가 2018년엔 3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리마켓 등 개인 창작까지 더하면, 사실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제주의 업사이클링 현주소

그렇다면 제주는 어떨까? 2010년, 가구나 건물 폐목재를 주로 활용한 에코 디자인 브랜드 RE:(이하 알이)가 제주 업사이클링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에코 파티 메아리'의 재활용디자인팀 팀장을 지낸 신치호 대표가 제주에 터를 닦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신 대표는 제주 지역에서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하여 테이블, 의자,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상패까지 제작하면서 1세대 업사이클러다운 면모를 보여왔다. 하지만 한동안 이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3년에야 제주해녀학교 출신 멤버들이 모여 '제주도좋아'라는 그룹을 만들면서 새로운 문화바람이 일었다. 영상, 목공, 금속 공예, 일러스트 등 각기 다른 영역의 멤버들이 모여 제주 바다로부터 얻은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예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제주도좋아'는 바닷가를 빗질한다는 뜻의 'beach combing(비치코밍)'을 알리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일조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바다유리(seaglass)를 이용한 브로치, 반지, 목걸이를 제작하고, 레지던지 운영, 업사이클링 아트 전시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갔다. 앞서 한 달이나 일주일 등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은 있었지만 이들과처럼 제주에 터를 잡고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제주에서 '바다쓰기'로 업사이클링을 시작한 2014년



“자원순환 섬, 제주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개최된 업사이클 전문가 워크숍



2018 제주업사이클 페스티벌 가치고치 체험부스 "뚝뚝뚝 바다쓰레기로 동화적 상상하기"

만 해도 제주에서 활동 중인 업사이클링팀은 '알이'와 '재주도 좋아' 둘뿐이었다. '바다쓰기' 역시 지난 5년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환경교육, 체험학습, 예술작품 창작, 디자인 상품 제작 등을 통해 제주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때론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때론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다 보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 5년 전 플라마켓에서도 생소했던 업사이클링이 지금은 대중화되어 새로운 브랜드까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제주해녀인형과 딱새인형을 제작하는 김하영 씨는 프로젝트 그룹 '씨앗'을 통해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이며 개인공방을 운영한다. 김민희 씨는 버려지는 호텔시트를 이용한 패브릭 제품과 자전거 부품을 활용한 액세서리

전문 스타트업 '아이즈온어스'를 운영하며 제주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수제악기 제작자인 윤주현(루니) 씨는 제주에서 폐자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악기 제작 및 공연으로 음악을 업사이클링에 접목시킨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제주 최초의 업사이클링 그룹 '알이'의 직원으로 일해온 김진주 씨는 지난해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조 및 플랫폼기업 '세간'을 창업해 제주 업사이클링 2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1~2년 사이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둔 개인이 부쩍 늘어, 플라마켓 등에서도 폐목재를 활용한 트레이나 조명은 물론 액세서리, 가방 등 패브릭 제품 등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공간에 이어 기업까지

업사이클링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사그라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 적이 많았다. 관광객이라는 특수성에만 의존한다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주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는 제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도내 업사이클 관련 행사가 늘어났다는 점이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업사이클링 아트 기획을 선보였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업사이클링페스티벌을 통해 전문가 워크숍, 체험, 전시 등을 기획해 대중들에게 다가갔다.

제주에 버려진 공간도 업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새 옷을 입었다. 비어있던 많은 돌창고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버려진 옛 여관은 전문 전시공간인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900평 넓이의 폐병커는 디지털 아트를 접목한 '빛의 병커'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또 구 제주대 병원은 리모델링을 거쳐 '예술공간 이아'로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문화복합공간이 되었다.

제주 업사이클의 미래

이처럼 제주의 버려진 공간이 눈부시게 바뀌는 이 변화가 반갑지만 아쉬움도 크다.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새활용플라자, 광명업사이클링센터, 인천업사이클링에코센터, 대구한국업사이클링센터 등 수년 사이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업사이클링을 기치로 건물이 들어섰다.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제주는 업사이클링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업사이클링센터만을 운영하고 있다. 10만㎡ 면적에 1,0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유리 공장을 설립하고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내년엔 폐유리재생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폐비닐, 플라스틱, 폐유, 폐타이어 등을 재생해 자원순환에 기여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01



02




03

01 2018 제주 업사이클 페스티벌 가치고치 체험부스에서 디자이너 엄지홍 씨가 운영한 "옷장 속 옷걸이의 변신"
 02 2018 제주 업사이클 페스티벌 가치고치 행사 중 열린 놀이 프로그램 "페트병 블록으로 로봇 만들기"
 03 폐자재로 만든 악기 핸드팬을 소개 중인 수제악기 제작자 윤주현(루니) 작가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개별 브랜드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과 지역주민 밀착형 공간 조성 사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였다. 대한민국 업사이클링 시장의 다변화는 필요하겠지만 순서가 다소 뒤바뀐 느낌이다. 폐자동차 가죽시트를 생산하는 서울의 한 사회적기업이 제주 JDC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소식은 참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시장은 한 정태 있고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주 업사이클러의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

내게는 오랜 꿈이 하나 있다. 제주에 버려진 넓은 공간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융·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제주에 버려진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고 상품이 돼 판매되고 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 말이다. 나아가 업사이클링 인테리어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 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제주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민·관이 뜻을 모으고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제주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무용가

김한결을 만나다

제주시 이도동,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마을 한켠에는 삶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고민하고, 무용으로 풀어내는 청년무용가 김한결 씨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편안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제주 생활 4년차, 안무가 김한결 씨를 만났습니다.'

글 **이야영**(재단 '아트노크' 서포터즈)

본 글은 청년예술가 온라인 플랫폼 '아트노크(artknock.net)'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입니다.



Q.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에서 한국 무용을 하는 김한결입니다.

Q. 제주에 오게 된 계기는?

제주에 온 지는 4년 되었어요. 제주에 알고 지내던 예술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1년 정도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하셔서 내려오게 됐죠. 제주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한 달 동안 부토(1950년대에 일본의 무용가 히지카타 타츠미가 처음 선보인 모던댄스의 한 분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내면의 행위를 이끌어내며, 정해진 기본 틀이 없는 자유로운 춤) 워크숍을 다녔었어요. 이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즉흥 작업을 해보자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입도 첫 해에는 주로 즉흥 공연을 정말 많이 했어요.

Q. 제주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신가요?

작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때, 쇼케이스 형식으로 30분 분량의 무용작품 「공간과 경계」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 작품을 토대로 「공간, 경계를 잇다」라는 작품을 기획했어요.

Q. 작품의 주제를 보면 '공간'과 '편안함'에 대한 고민이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듯합니다. 생활하시는 '제주'와 작품 속 주제인 '나의 공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미디어에서는 제주도를 환상의 섬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를 꼭 가고 싶은 섬,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입도 후 생각했던 것만큼 자유롭지 않고, 정착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면 스스로 상상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엔 어디에나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 보면 그런 공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상상하는 공간과

- 01 청년 무용가 김한결 씨
- 02 청년 무용가 김한결 씨의 작업실
- 03 제주에서의 세 번째 작품, 「공간, 경계를 잇다」(김한결 제공)

*청년유망예술가육성지원사업은 재단이 경쟁력 있는 지역 청년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창작 집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실제 공간은 같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의 연장에서, 스스로에게 '나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나만의 공간'임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심리학 책을 찾아봤어요. '편안한 공간에 있으려면 자기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더군요. 결국, 공간과 나 자신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상태'였던 거죠.

내 마음이 편하면 편안한 공간이 되고,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불편한 공간이 되고... '공간의 경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풀어서 만든 작품이 쇼케이스 「공간과 경계」였어요.



Q. 이번 작품의 주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안무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셨나요?

먼저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들을 찾아요.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잘 표현될 수 있게 음악을 다시 편집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소리를 찾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반복적인 움직임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안무를 구성했어요.

마지막 4막에는 Coldplay의 <Fix you>를 사용했어요. 제가 표현하려는 내용과 가사가 잘 맞았어요. 누군가가 제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가사인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서 무용으로 표현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Q. 무용으로 풀어내긴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풀어내시나요?

중간중간 영상을 보여주거나, 소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 작품에선 컵에 사람 모양 포스트잇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팬플릿에서도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고, SNS를 통해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고민의 과정을 올리기도 합니다.

관객과의 소통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무용 공연을 많이 접해본 적 없는 분들은 생소한 분야라 '저게 도대체 뭐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과의 만남 시간을 갖고, 작품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잘 읽어주신 분도 몇몇 계셔서 감사했지요.

Q. 이번 작품이 제주에서의 세번째 작품인데요, 이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이어도 사나」가 제주에서 첫 작품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요. 이 풍경과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영등, 바람」이에요. 오름에 올랐는데 솔솔 부는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 바람과 풍경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 「공간, 경계를 잇다」도, 육지에서는 못 느꼈던 공간의 편안함을 제주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만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자취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집이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릴 땐, '편안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공간, 내 집은 어디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주가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제주도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Q. 제주에서 만든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예전에는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용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제주에 온 이후엔 '현재'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이런 걸 표현해 볼까?' 하면서요. 세 작품 모두 이런 흐름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작품「이어도 사나」는 미리 짜인 안무가 거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작품「영등, 바람」은 즉흥과 안무가 반씩 섞여 있었어요. 세 번째 작품「공간, 경계를 잇다」는 전체적으로 사전에 안무가 구성됐어요. 최근엔 이전 작품을 보완하는 형태로도 활동하고 있지요.

04 제주에서의 첫 작품 「이어도 사나」(김한결 제공)

05 제주에서의 두 번째 작품 「영등, 바람」(김한결 제공)

06 제주에서의 세 번째 작품 「공간, 경계를 잇다」(김한결 제공)

종종 완전히 짜인 작품을 하는 게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다 보면 저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찾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Q. 공간으로써 제주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년차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는 사람도 친구도 없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4년차가 되고, 적응이 되니 제주만큼 작품을 만들고 예술 활동하기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에 오기 전, 서울에 살면서 저는 서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생활도 풍요로우니까요. 하지만, 제주에 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보다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오름과 숲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향을 알았어요. 나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가 집이구나,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 안무가로 작업할 수 있고, 무용과 관련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직업도 가질 수 있었던 점들도 제게 안정감을 주었고요.

Q. 제주를 작업을 계속 해 나가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물론, 운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정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서를 쓰고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라서 첫 번째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별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후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지만요.

그 과정까진, 제주에서의 생활이나 작업에 대한 애정,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제주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공간, 경계를 잇다」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작품은 제 또래 청년들의 고민을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입받은 삶을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 또래도 그렇고, 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공한 인생이라는 명목 아래 좋은 직장, 남들이 원하는 삶이 정말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요? 누군가는,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내면과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제 공연을 보시고 '나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공연이 자신과의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아트노크(ART KNOCK)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청년문화예술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주도내 청년예술가의 포트폴리오 및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및 마케팅, 파트너 협력 및 매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과 홍보의 실제적인 커넥션(Connec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아트노크(Art_예술 + Knock_두드리다)가 청년예술가들이 예술로 세상을 향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artknock.net



04



05



06

가시나물 가는 길

글·사진 변종태(시인)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가시나물(영평)로 가는 길. 예전에는 문자 그대로 구절양장(九折羊腸), 굽이굽이 돌아드는 골목길을 따라 뽀얀 먼지 날리는 비포장 길을 지나서 산길을 10여 분 걸어 들어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주첨단과학단지를 지나 서귀포를 왕래하는 자동차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변화의 물결이 온 마을에 흘러들고 있다.

01 마을회관 준공 기념으로 세워진 상징탑. 앞면에는 지명 유래와 향약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내가 쓴 축시가 새겨져 있다.

02 마을회관 앞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나이든 팽나무들

제주시내에서도 그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이건만 가시나물은 세상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전통을 고수하곤 했다.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대소사를 집에서 직접 치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돼지를 잡기도 하고, 음식을 하고, 동네 청년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상어를 메고 장례식을 치렀으니, 엔간한 지역의 두메산골처럼 현대화 바람은 우리 마을을 비껴가는 듯했다.

하지만 어찌랴. 제주에 불어닥친 개발 바람은 우리 마을도 비껴가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되더니, 흙탕물 튀는 길을 버스가 지나간 것은 채 몇 년이 안 되었건만 옛 마을 모습은 아득히 추억 속의 그림으로 남았다. 과수원 감귤나무들이 잘리고 어느새 10여 개가 넘는 빌라촌과 타운 하우스가 현대식 건물로 마을의 풍치를 바꿔놓았다. 원래부터 마을에 뿌리박고 살았던 주민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외지인들이 월등히 많아 마을에 나가도 알지 못할 얼굴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앞의 노거수인 팽나무는 문명의 접근을 거부하는 마을 사람들의 완강한 마음처럼 곳곳하게 마을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열 그루 중에 몇은 족히 200여 년을 넘긴 듯 보인다. 마을회관 울타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 마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마을회관 앞에는 회관 준공과 더불어 마을의 지명 유래와 향약을 새겨놓은 상징탑이 세워져 있는데, 뒷면에는 필자의 축시가 오석(烏石)에 새겨져 있다.



01

01



02

마을, 그 마을이 있었네.

한라산정에서 제주바다로 달음질하던

두 마리의 용(龍)

마을 동쪽을 흐르는 화북천(禾北川)이 되고

서쪽을 흐르는 가마귀내가 되어

역사를 지켜가는

마을, 그 마을이 있었네.

남으로 한라산 북으로 제주바다

배산임수(背山臨水) 좋은 자리 가시나물이라 했네,

오백 년을 지켜온 조록낭 아래

해맑은 웃음이 굴러다니고

넉넉한 인심이 초록으로 영그는 ㄱ남모루

가시남모루가 가시나물 되었네

편안하고 살기 좋아 영평(寧坪)이라 불렀네

그리움이 시작되면 절망도 끝나는 곳

사람들이 오순도순 선량하게 사는 마을

가슴 속 깊은 곳에 화인(火印)으로 들어앉은

마을회관 앞 늙은 팽나무 열 그루

다시 올 오백 년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을 지키고 있네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네.

—출시, 「이곳에 가시나물이 있었네」전문

팽나무의 특성상 단풍이 그리 고운 나무는 아니지만, 가을이 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한 잎 한 잎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마을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마을 앞 즐비한 팽나무를 보면 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주어로 시를 써 보았다.

할루산드레 올르당 보민

긱드레 고지레 올르당 보민

쇠번보레 등게등게 올르당 보민

땀도 잘잘 나곡 입도 보짝 들르지 아니느냐

경허거들랑 저레 글라, 저디 풍낭 강알드레 글라

풍낭 강알 팽상 우이 브롬 건듯 불업시네

저레 글라 검불령 글라

이디가 가시나물이어

긱디 가기 전이 사름 사는 ㅁ실이어

죽갱이에 땀나거들랑 검불령 글라

이레 화륙 저레 화륙 기시린 강생이추룩 와리지 마랑

허다 허다 와리지 마랑

저레 강 검불령 글라, 풍낭 강알에 강 검불령 글라

이레 군작 올르당, 옷한질드레 올라가당 돌아상 보민

성안도 흰히 배려질 거여

앞바당에 튼 괴깃배도 배려질 거여

웃드리엔, 웃드리엔덜 내무리던 ㅁ실이어마는

이젠 질도 군작, 사름도 한한

물 좋고 사름 편안한 가시나물이어

풍낭 강알 팽상 우이 아장 시상을 보민

하 즈들 일 허나도 어서진다

허다 즈들지 마랑 검불령 글라

가시나물 풍낭 강알에 강 검불령 글라

불에 덴 강생이모냥 이레 화륙 저레 화륙 와테기지 말앙

즈들앙 걱정 어서질꺼민 걱정허주마는

즈든덴 즈들 일 어서지크냐

풍낭 강알에 강 검불리멍 즈들어지는 것덜도 검불려볼게

풍낭 강알에 부는 브롬이 느 죽갱이도 검불려 줄 거여

—출시 「가시나물 풍낭 강알」전문

한라산 향해 오르다 보면/숲으로 산으로 오르다 보면/쇠번 보

러 허둥지둥 오르다 보면/땀도 줄줄 흐르고 입도 바짝 마르지 않

니/그렇거든 저기로 가자, 저기 팽나무 아래로 가자/팽나무 아래

팽상 위에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잖니/저리 가서 땀들이고 가자/

여기가 가시나물이란다/숲으로 가기 전에 사름 사는 마을이란다

/겨드랑이에 땀나거들랑 땀들이고 가자/이리 화들짝 저리 화들짝

날뛰는 강아지처럼 서두르지 말고/부디 서두르지 말고/저리 가서

땀들이고 가자, 팽나무 아래에 가서 쉬었다 가자/저리 곧장 오르

다가, 웃신작로 향해 오르다가 돌아서서 보면/시내를 환히 볼 수

있을 거야/앞바다에 뜬 고깃배도 볼 수 있을 거야/번두리라고, 번

두리라고 하찮게 여기던 마을이지만/이젠 길도 곧고 사람도 많고

/물 좋고 사람 편안한 가시나물이란다/팽나무 아래 팽상에 앉아

세상을 보면/아무 근심할 일 하나도 없어진단다/부디 걱정하지

말고 땀들이고 가자/가시나물 팽나무 아래 쉬었다 가자/불에 덴

강아지마냥 이리 화들짝 저리 화들짝 설치지 말고/걱정해서 없어

지면 걱정하지만/걱정한다고 근심이 없어질까/팽나무 아래서 쉬

면서 걱정거리들도 다 말려버리자/팽나무 아래 건듯 부는 바람이

/네 겨드랑이도 말려줄게다(「가시나물 팽나무 아래」)

03 집으로 가는 올레

04 돌담과 동백꽃

05 올레에 떨어져 수북이 쌓인 낙엽





설촌된 지 500년이라는 마을의 역사를 입증하듯, 우리 앞 집 과수원에는 수령이 500년을 훌쩍 넘는 조록나무가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밑동은 성인 세 사람이 팔을 벌려 손을 맞잡고 안아도 남는데, 이 나무는 1974년 4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1호, 천연기념물(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발간된 마을지에서 설촌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5백 년 전 진주 강씨 渭亮(위량) 공은 세종 4년 서기 1459년 기묘 9월 19일 한양에서 출생, 학문과 덕업을 쌓아서 어모장군 관직을 거쳐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에 올랐으나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관직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 피신은 거의 모진 역경을 겪으면서 안주처를 찾아 제주도로 입도했다. 그 후 명당을 찾아 한라산 정기 밋은 제주시 영평동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설촌의 계기가 되었고, 그 당시부터 이곳을 속칭 가시나무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내가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다음과 같이 시로 노래한 적이 있다.

내 고향은 가시나무. 제주시에서 중산간으로 20분쯤 어쩐지 가시내가 입술에 빨간 루즈를 바르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그 가시내가 대바구니 옆에 끼고 봄나물을 캐고 돌아오다가 봄마중 나온 뱀에 쫓겨 허겁지겁 치맛속을 들춰줄 듯한, 고살을 지나, 광대나물 입술 파아란 꽃을 피워내는, 내 고향은 가시나무, 가시나무새 한 마리가 가시나무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다가 일생에 단 한번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가슴을 가시에 찢린 채 죽어버린다는 전설이 들릴 듯, 아니, 오해하진 말아요. 가시나무엔 가시가 없어요. 그녀의 눈처럼 동글동글한 열매가 열릴 때, 어찌면 당신의 가시나무새가 슬픈 울음을 울어줄지도 몰라요.

—출시, 「가시나무, 가시나무, 혹은 가시나무새의 전설」 전문

하지만 우리 마을의 이름인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주 지역에 주로 자라는 가시나무는 종가시나무이거나 개가시나무인데, 제주어로는 가시낭이라 불리긴 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구실잣밤나무와 매우 흡사하여 마을 사람들은 두루 조밤낭이라고 부르곤 했기 때문이다. 이 나무는 4~5월에 꽃이 피는데, 수꽃 이삭은 지난해에 난 가지에서 밑으로 처지고, 암꽃 이삭은 새 가지에 곧게 선다. 꽃내음은 진한 밤꽃 내음이어서 사람들마다 호오(好惡)가 분명히 갈리기도 한다.

학창시절, 학교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집에서 무덤들이 즐비한 소나무 밭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을 10여 분 걸으면 제주 송이석을 붙여 아담하게 지어놓은 버스대합실과 마을 주민들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정류소가 있었다.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험렸지만,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월평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곤 했다. 다시 중앙로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기억이 있다.

늦은 시간 하룻길에도, 무거운 책가방을 들쳐 메고 버스



06 집으로 가는 올레
07 돌의 표정

에서 내려 가로등도 없이 캄캄하고 굽이진 산길을 걸었다. 집에 이르는 길은 양쪽으로 대숲으로 에워싸이거나 소나무 숲이거나 동백나무로 가려진 골목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 골목을 지나면 현무암을 쌓아올린 돌담이 보였다. 이따금 족제비가 길을 가로질러 돌담 구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기다란 뱀이 느릿하게 스며들기도 하고, 몸피 작은 새들이 들락거리기도 하였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돌담의 구멍들은 악기가 되어 바람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동올레'에 이르면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동백나무 사이로 초라한 슬레이트 지붕의 우리 집이 보였다.



08

그랬던 우리집도 10여 년 전 새로 지어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가시나물의 동쪽에 있는 골목이란 의미로 '동올레'라 불렀는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일러가 아닌 장작을 지퍼 연료로 사용하였기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날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곤 하였다.

원래 올레는 제주도 주거 형태의 특징적인 구조로, 일반적으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삼다의 섬 제주는 거친 바람으로부터 가옥을 보호

08 봄이 찾아온 우리 집 마당

09 마을 올레의 돌담과 구멍

10 지붕에 송이석을 붙인 버스 대합실. 첨단로 확장공사로 헐리고 이제는 없다.



09



10

하기 위해 집 울타리에 돌담을 쌓았다. 하지만 돌담의 입구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현무암을 이용하여 좁고 굽은 골목을 만들었다.

동올레를 들어서면 뽕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동생과 또래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며 딱지치기를 하거나, 바람 다 빠진 공을 차거나, 병정놀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집 앞을 지키는 빛나무는 이미 낙엽을 끝내고 겨울 채비를 하고 있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다. 흡사 빗자루처럼 하늘의 구름을 쓸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동올레부터 '첫(西)올레'까지는 양쪽으로 야트막한 돌담이 정겹게 뻗어있었다. 이 돌담은 50여 년 세월이 흘러도 아직 올레를 지키고 있고, 담장을 개보수하는 한이 있어도 블록 담장으로 갈지는 않아 아직도 정겨운 모습이 남아있다.

문득 먼지 날리는 옛 올레길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두고 천천히 버스 정류소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본다. 옛날의 돌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옛 생각이 떠올랐다. 나무들이 훌쩍 키가 자라 멀리 보이던 제주시 풍경도 이제는 가려져 버렸지만, 돌담은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라 그 옆을 지나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레길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 등장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올레길을 맛보고 가는 이들은 거의 드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원형 그대로의 돌담으로 된 올레길을 감상하시려면 꼭 우리 집으로 가는, 동올레에서 첫올레로 이어지는 이 길을 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다.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아닌, 적당한 굽이, 그 굽이마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올레.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 집에 들러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

100년 시간 여행,

제주오일장

글 강봉수(제주작가회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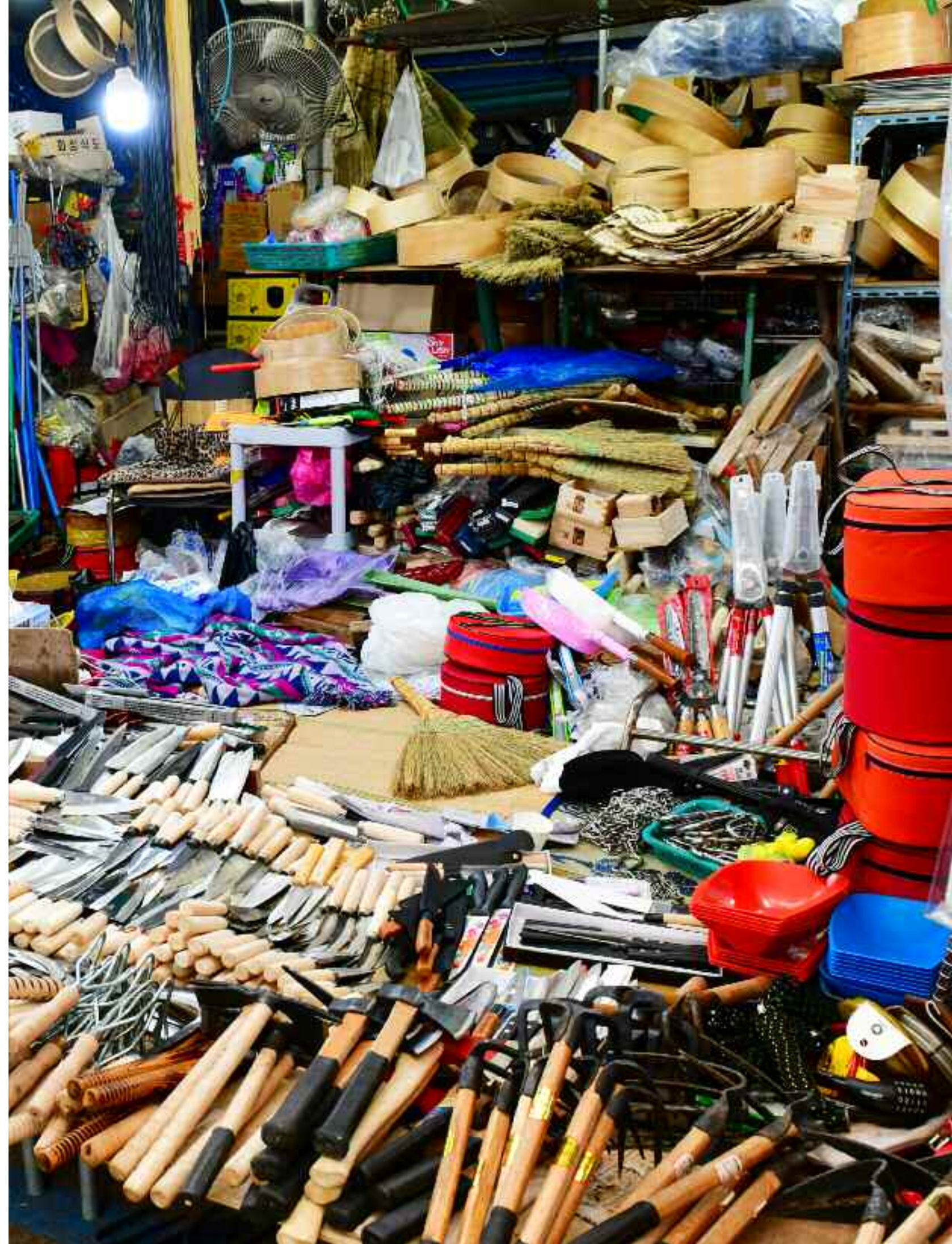
기억은 시간 속에 채워져 길이 된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며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곤 한다. 다가올 미래는 예측과 상상으로 그려져 현실로 나타나지만 지난 시간은 예측과 상상이 아닌 결과물이란 실체로 남겨진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유형으로 영원하지는 않다. 유산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 각각 그 수명이 다르긴 하지만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사라지고 소멸되어 간다. 사람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대체로 그렇다.

그렇게 흘러가고 사라진 것들은 다시 상상된다. 상상되는 미래와 상상되는 과거는 확연히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체험하지 않은 것과 체험한 것으로 그 속성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체험한 것들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진만큼 명확한 게 없을 것이다. 과거의 사물 또는 풍경 등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당시 형태로 기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법으로서 사진은 매우 훌륭한 기술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록이라 할지라도 영상을 포함하는 사진만큼 명확하고 명쾌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볼까 한다. 그 여행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 첫 여정의 목적지는 제주시민속오일장이다. 5일에만 서는 오일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품이 교환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이면서 새로운 소식과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자 자연스런 대화 속에 소통을 이어가는 여론 형성의 공간이 되어왔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수단이 열악하던 시절, 오일장의 기능은 매우 다양했다. 혼담이 자연스럽게



오기는가 하면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까지 전파되는 언론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기능은 마을 곳곳, 전국 각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습득하는 공간으로서, 또한 집회처로 활용되기도 했다. 1919년 조천 3·1 만세운동도 조천 장터에서 이루어졌고 4차에 걸친 항일만세운동 중 가장 인파가 많았던 때도 장이 서던 날이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오일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주 지역 오일장은 1906년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민간의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읍내를 시작으로 개설한 것이 기원이 되고 있다. 1910년경에 이르러 제주 지역에는 15개소의 오일장이 개설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에 발간된 수산지(水産誌)에 실린 제주도장시(濟州道場市) 현황을 보면 제주군에 제주읍·삼양·조천·김녕·별도(하도)·두모·명월·애월 등 8곳과 정의군 지역에 정의읍·의귀·하효 등 4곳, 대정군 지역에 도순·창천·대정읍 등 3곳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오일장은 제주읍 오일장이다. 올해로 112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민속오일장은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장소를 이전했다.

제주시민속오일장은 조선 말 보부상의 상거래 장소로 이용돼다 1906년 현재의 제주목관아 관덕정 앞 광장에 개장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1940년대 초 일도1동 현재의 탑동 부근으로 이설되었다가 1968년 12월에는 건입동 탑동 주변, 1969년 12월에는 삼도2동 서사로 사거리, 1974년 12월에는 현 적십자회관 주변, 1982년 7월에는 제주시종합운동장 동쪽 도로변, 1984년 2월에는 연동 신광초등학교·남녕고 일대, 1986년 10월에는 현 롯데시티호텔제주 동측, 1988년 10월에는 신광마을 일대, 1993년 5월 현 사라봉공원지구 남측 부지로 이설되었다가 1998년 11월에 현재의

서중 서북측인 도두1동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오일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4년 12월 7일 현 적십자회관 주변으로 이설된 때부터다.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 같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서사라와 용담1동의 경계가 되는 병문천을 끼고 오일장이 개설되었다. 당시 나는 오라동 사평마을에 살았는데, 집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장에 내다 팔면서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오일장과의

1910년 발간된 수산지(水産誌)에 실린 제주도장시(濟州道場市) 현황

	場市名	開市日
제주군	제주읍	2일, 7일
	삼양	1일, 6일
	조천	3일, 8일
	김녕	4일, 9일
	별도(하도)	5일, 10일
	두모	4일, 9일
	명월	5일, 10일
	애월	3일, 8일
정의군	고성	5일, 10일
	정의읍	1일, 6일
	의귀	2일, 7일
	하효	3일, 8일
대정군	도순	4일, 9일
	창천	5일, 10일
	대정읍	1일, 6일

현재의 오일장(9개소)

1일, 6일	대정·성산오일장
2일, 7일	제주시민속오일장 표선오일장
3일, 8일	중문오일장
4일, 9일	서귀포시향토오일장 한림·고성오일장
5일, 10일	세화오일장



제주오일장날 활기찬 장터 모습(촬영: 강봉수)

첫 만남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부터 충격이었고, 수많은 물건들이 늘어서 있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오일장에서 사주신 멸치국수는 지금까지도 그 맛이 입에 남아 있는 듯하다. 그 맛에 끌려 부모님이 오일장에 가는 날이면 으레 따라가곤 했다. 다음으로 접한 음식은 단맛 나는 미숫가루에 우미를 넣고 주먹만 한 통얼음을 띄운 우미냉국이였다. 그렇게 오일장은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

우리 집은 비교적 크게 무 농사를 지었다. 장날이면 매번 빠지지 않고 무를 내다 팔았다. 하지만 정해진 구역이 없어, 장이 서는 전날 저녁에 팔 곳을 미리 골라 터를 잡아야 했다. 난전상의 어려움은 그랬다. 전날부터 무를 캐고 다듬어 손질한 후 큰 것은 3개를 한 묶음으로 단을 만들었다. 보통 크기는 4개, 크기가 조금 작은 것은 5개 정도를 한 묶음으로

하여 3백여 단을 만들고, 전날 일부를 터 잡기 용도로 실어다 쌓은 다음, 나머지는 장이 서는 날 아침 일찍 실어다 팔았다.

한 단에 5백 원씩, 매번 수백 단을 판 돈은 아버지가 가세를 늘리기 위해 받을 시는 종갓돈이 되었다. 한번은 터 잡기 용으로 쌓아 둔 무를 부모님이 장에 오기 전에 모두 팔아치운 일이 있었다. 무려 백여 단이 넘는 양이었다. 무료하게 기다리기 어려워 한 단 한 단 팔다 보니 모두 팔게 되었다. 돈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무 삼썬, 맛좋은 놈뻘 삼서!” 외치다 보니 무가 남김없이 사라진 것이다. 장에 도착한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때 이후 아버지는 “네가 장에 가면 재수가 좋다.” 하시며 장이 서는 날이면 나를 꼭 데리고 다니셨다. 운을 가져다 주는 아들, 그 기대감은 곧 의무감이 되어 1982년 오일장이



1906년 개설된 제주 최초의 오일장 현 관덕장 광장(출처: 『20세기 제주시』)



1974년부터 1982년까지의 용담오일장 현 적십자 부근(출처: 『20세기 제주시』)

종합경기장 부근으로 이설될 때까지 아버지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한편 아버지는 장에서 등피불 호야를 사오시기도 했고, 닭이며 오리도 종종 사오시곤 했다. 꿩이, 호미(낮), 골갱이, 삼도 오일장에서 조달했다. 이런 경험 속에 내게 오일장은 많은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새로운 물건들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곳, 집에서 기른 돼지나 집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곳, 설이나 추석 명절빔·제사에 쓸 제수용품 구입할 수 있는 곳, 별의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생활용품이나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기억으로 상상되는 곳이다.

오일장 제품 의존도가 많아서였는지 내가 쓴 용품의 9할은 오일장에서 나왔다. 그렇게 오일장은 내가 필요한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설된 오일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보고 상상할 수 밖에...

1906년에 개설된 제주 최초의 오일장을 사진으로 보면 관덕정과 시장에 나온 사람들, 내다 파는 물건들이 보인다. 보물 제322호인 관덕정은 조선시대 건축문화재 중 제주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문화 유산이다. 1448년(세종 30) 안무사 신숙청에 의해 군사훈련장으로 창건된 이후 1480년(성종 11) 목사 양찬이 중수하였다. 그 후 1559년(명종 14) 목사 이영, 1690년(숙종 16) 절제사 이우항, 1753년(영조 29) 방어사 김몽규, 1778년(정조 2) 방어사 황최언, 1833년(순조 33) 방어사 한응호, 1851년(철종 2) 방어사 이현공, 1882년(고종 19) 방어사 박선양에 의해 중수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4~50년마다 중수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풍파에 의해 퇴색·변화해 가는 목조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1924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도사에 의해 15척이나 되던 처마가 13척으로 잘려 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관덕정은 원형을 잃은 채 이어지며 광복 후 1948년에는 제주도 임시 도청으로, 1952년에는 도의회 의사당과 북제주군청 임시 청사로, 1956년에는 미공보원 상설문화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 난'과 1948년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시위사건이 발생했던 무대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2004년 관덕정은 다시 중수공사에 들어가 2년 8개월 동안 부식과 변형된 목부재 교체, 지붕과 단청 보수, 대수렴도, 십장생도, 적벽대첩도 등 8점의 벽화 복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 잘려 나갔던 처마를 원래의 15척 길이로 복원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볼 때 사진에서 보는 관덕정은 1924년 중수된 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 여성들의 의복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흰 무명옷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는 것이 평상복 차림이었던 것 같다. 장에서 파는 물건은 도기류가 주를 이루었고, 그 제품으로는 요강, 사기그릇과 양철로 만든 물동이, 국자 등이 보인다. 장을 보는 아낙들은 대나무로 엮은 구덕을 장바구니로 이용하고 있음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사진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현 적십자 부근에 위치해 있던 오일장으로, 주변 건물은 초가가 사라진 후의 건물 양식이 보이고 오일장의 장옥으로 쳐놓은 천막들도 비교적 많이 보인다. 사람이 많은 것은 여전하지만 의복은 관덕정 당시와 달리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컬러풀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옥은 간이 천막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5월부터 1998년 11월까지의 사라봉공원 오일장(출처: 『열린제주시』)



19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제주시민속오일장(촬영: 강봉수)



제주시민속오일장 입구(촬영: 강봉수)

완벽하게 터를 잡지 못한 까닭이다.

1993년 5월 사라봉공원지구 내로 이설된 오일장은 천막 장옥이 규모 있게 자리를 잡고 있고, 난전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멀리 사라봉 기슭에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탑과 의병항쟁기념탑, 김만덕묘탑과 모충사가 보인다. 1998년에 오일장이 다시 이설되면서 이곳에는 제주 국민체육센터,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사라봉공원축구장이 들어섰다.

현재 제주시민속오일장은 1998년 11월 22일 사라봉에서 도두동으로 이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제주시민속오일장은 1,004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어물·식당·청과·식기·죽세·약재·식료품·신발·침구·마늘·야채·곡물·포목 등 13개 품목의 장옥과 5개 품목의 노전, 가죽·철물·종합부 등 기타 시설로 구성되고 있다. 이용객은 장이 서는 날 하루 평균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른다. 이밖에 고객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종합홍보관과 문화광장, 올해 9월 준공된 현대식 공영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할망장터와 수산물전, 농산물전, 청과류전, 화훼전이 눈길을 끈다. 정이 오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물건 값이 왔다 갔다 한다. 아직까지 오일장은 시대를 반영하고 인심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상상되는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남아 있다. 📍

치렁치렁한 예술품이냐

글 김연주(문화공간 양 기획자)

고길천 Koh gil-chun

바라본다 Seeing

1990-2018



2011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위에 「구럼비 지킴이」가 섰다. 작가 최평곤이 제주도내 내려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만든 조형물이다. 최평곤은 강정마을의 삼거리에 「가시고기」도 세웠다. 최평곤 외에도 많은 도의 작가들이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이 강정 해군기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고길천이 있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길천'을 검색하면 4·3과 강정 해군기지를 국내외에 알려온 그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로 하여금 4·3에 관심 갖게 하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예술가로서 고길천의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행동주의 미술은 사회를 바꾸기 원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술가들만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택할 수는 있다”는 미국의 미술비평가 루시 리파드(Lucy R. Lippard)의 말처럼, 행동주의 예술가들은 예술의 역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작업실에만 있지 않고 시위 현장 한가운데로 나와서 투쟁하며, 다른 예술가들에게 사회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길천은 행동주의 작가다. 그는 ‘예술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의 현장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싸웠다. 또한, 다른 작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으며 4·3의 아픔과 미국의 책임문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국내외에 알렸다.

4·3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현장을 작품으로 옮긴 고길천의 작품이 제주현대미술관에 모였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그의 첫 번째 개인전이자 회고전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그의 작품세계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전시명 《바라본다》는 작품 제목에서 따왔다. 고길천은 「바라본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1회 4·3미술제부터 연이어 세 번 출품했다. 첫 번째 「바라본다」(1994)는 4·3 때 한라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사진을 동학혁명 지도자 전봉준의 사진과 나란히 붙여놓은 작품이다. 두 사진 위에는 총의 조준선이 합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가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다음해 출품된 「바라본다」(1995)는 1994년 작품 「바라본다」의 사진 속 인물이 가관대를 바라보는 듯 한 장면을 연출한 설치작품이





다.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가 쌓여있는 가판대는 우르콰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가져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4·3의 생존자가 1995년 당시 직면했던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제3회 4·3미술제에 출품됐던 「바라본다」(1996)는 이번 전시에서 다시 소개됐다. 전시장에 설치된 텐트 속에 텔레비전이 놓여있다. 텔레비전에서는 4·3 당시의 사건을 그린 작품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텐트 뒤편에는 현재 제주도를 환상의 섬으로 묘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작품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사실 4·3의 유적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고길천은 세 작품에서 4·3과 4·3 이전의 과거를, 4·3과 현재를, 피해자와 가해자를, 작품과 작품을 중첩시킨다. 「바라본다」라는 작품을 이번 전시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이 작품이 고길천 작품세계의 특징을 함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길천은 하나의 작품에 여러 층위의 내용을 중첩시켜 4·3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4·3의 눈으로 역사와 현재를 이해하게 했다.

《바라보다》전에서는 4·3, 정치, 생태를 고길천 작품의 핵심 개념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에 따라 특별전시실에는 4·3미술, 제1기확실에는 정치미술, 제2기확실에는 생태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이 주로 전시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전시실이 서로 다른 주제이기에 확실하게 구별되기보다 각각의 주제가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탐라미술인협회의 회원으로 4·3미술제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 지금까지 4·3미술을 이끌어온 작가이기에 4·3은 고길천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고길천의 주제 의식은 4·3을 바탕으로 정치와 생태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미국에게 4·3의 책임을 묻는 작가에게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었으며, 무자비한 폭력에 반대하는 작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연에 휘두르는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10시간의 이륙」(2006)은 대추리의 캠프 험프리에서 이륙하는 전투기를 10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다. 전시된 43장의 사진에서 그가 4·3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의 머리 전체에 붕대가 감겨 있는 「눈 먼 새」 연작과 실제 새의 깃털을 작품 위에 붙인 「앞 못





이처럼 고길천은 4:3과 같이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와 식민성의 문제와 같이 비판의 거리가 필요한 문제를 다룰 때 같은 매체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에 가장 적합한 매체와 형식을 고민했다.

한 작가가 약 30년 동안 활동했는데 제주도 내에서 그의 작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글이 없었다.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더 많은 목소리와 시각이 존재해야 한다. 고길천의 작품을 어떤 틀 속에 가두는 일은 불필요하지만,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기에 고길천을 4:3미술 작가이자 행동주의 작가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의 고길천을 바라보는 시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고 「4:3미술 인터넷 사이트를 위한 에스키스」(2000)와 같이 활동가로서의 고길천과 작가로서의 고길천이 정확하게 만난 지점에서 나온 작품이 갖는 의미를 행동주의 미술의 관점에서 제대로 논했다 하면 그러지도 못했다. 이번 전시가 끝날 때쯤에는 고길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평문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보는 새」연작에서는 제주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게 휘두르는 폭력이 4:3 때의 폭력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4:3을 중심으로 확장된 주제의 일관성과 달리 개인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작품에 사용된 매체와 형식은 다양하다. 고길천은 매체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용만을 고집해 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990년부터 최근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기에 그가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왔는지가 더욱 부각된다. 현대미술의 특징이 한 작가가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고길천은 현대미술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고길천 만큼 매체의 폭이 다양한 경우는 드물다. 평면작품과 입체작품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같은 평면작품에서도 유화, 판화뿐만 아니라 콜라주와 물체 위에 종이 등을 놓고 연필과

같은 도구로 문질러서 형태를 만드는 프로타주 기법까지 이용한다.

고길천 작품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매체와 형식을 사용해서 작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주공항 유해발굴 현장에서 나온 희생자의 옷을 프로타주 기법으로 표현한 「60년 만의 외출」(2009)만큼 4:3 희생자의 유골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진을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어 보인다. 「60년 만의 외출」에서 작가는 4:3 희생자와의 거리를 없애고 다가갔다면, 「매우 바람직한 염색체」(2002)에서는 반대로 사진 속 인물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 작품을 위해 작가는 인물사진을 직접 찍는 대신 잡지 『아사히 카메라』에서 가져왔다. 사진 속 인물의 까만 눈동자를 파랗게 칠한 작가는 동양에 잠식해 있는 서양의 문화를 말하고자 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능력? 어서오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예술공간 오이 연극 「SS」

글 한형진(제주의소리 기자)

“어서오세요, 저희 스펙 스토어(Spec Sto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눈에 봐도 부담스러운 사장의 의상과 표정, 분위기로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그곳은 바로 스펙 스토어, 줄여서 SS다.

2011년 창단한 제주 극단 예술공간 오이의 작품 「SS」는 스펙 스토어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연극이다. 스펙과 스토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인 spec과 store를 합치면 ‘조건을 파는 가게’ 정도로 해석된다. 작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고, 그만큼의 다른 능력을 받는 ‘등가교환’의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심미안, IQ, 추억, 심지어 오지랖까지 취급한다. 무형의 능력을 교환하는 신기한 가게.

주인공은 ‘취준생(취업 준비생)’ 8년차 현세,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 모모, 우주선 개발자였지만 예술가를 꿈꾸는



술인, 그리고 수상하지만 놀라운 능력 교환의 ‘능력’을 지닌 사장까지 넷이다.

작품은 현세, 모모, 술인 모두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다. 울먹이며 ‘실패하면 안돼요’,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모,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현세와 술인.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이 등장인물을 삼킬 듯 비추고 난 뒤, 무대는 SS로 이동한다.

현세, 모모, 술인. 세 사람은 하나 같이 커다란 결핍과 상처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다.

간절히 원하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세.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추억을 내놓을 테니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할 만큼, 눈앞의 절박한 현실에 매몰돼 있다.

고아로 태어나 가난한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자신에게





걸린 보험금을 위해 양부모에게 계획 살인 당할 위기에 놓였던 기구한 운명의 모모.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지만 가족의 정 때문이 그립고 보고 싶다는 아이러니함에 괴로워한다.

상위 2%, IQ 148 이상이라는 '멘사' 기준을 가뿐하게 제칠 만큼 뛰어난 두뇌를 지닌 술인. 그 덕에 최고들만 모인다는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이라며 우주선 폭파의 책임에 한없이 괴로워한다.

「SS」는 마음에 커다란 공백을 품고 사는 세 인물이 한 명씩 공백을 채워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SS에서 능력을 얻어 단번에 '짠' 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속을 터놓는 소통 속에서 문제를 풀어낸다.

현세는 모모의 사정을 듣고 깊이 공감하면서 스펙이 아닌 마음 가는대로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모모는 비정한 부모를 용서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데, 현세의 응원에 힘입어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더욱 극적인 갈등해소는 술인에게서 나타난다. IQ 일부를 떼어내 심미안, 즉 미를 찾는 능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공감 능력을 추가로 장착하겠다는 술인. 현세·모모·사장까지 함께 한 술자리에서, 높은 지능 때문에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 우울한 어린 시절과 우주선 개발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심적 부담을 힘겹게 털어놓는다. 그런 술인을 나머지가 위로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상처는 모두 봉합된다.

경제 불황, 극단적인 개인주의, 끝이 없는 경쟁...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만성질환이 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짓누른다. 예술공간 오이의 「SS」는 A4 용지 서류에 스펙 하나를 추가한


다고 진정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치유하는 사람과 사람의 진실된 관계가 개인·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극 말미, SS에서 문제를 해결한 세 명의 등장인물은 난데없이 나란히 병원에 모인다. 이내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밝은 빛이 무대 위를 채운 극 초반 장면과 이어지면서 SS의 존재에 대해 어렵듯이 짐작케 한다. 꿈속으로 들어가 현실을 바꾸는 영화 「인셉션」이 떠오른다.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연한 「SS」는 지난 2015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이었다. 새 연출자(남석민→고승유)에 출연진도 4명에서 A·B팀 8명으로 늘어났다. A팀은 김경미(사장), 부지원(현세), 문혜림(모모), 김수민(술인) 씨이며, B팀은 전혁준(사장), 박은비(현세), 김지은(모모), 김민경(술인) 씨가 출연했다.

배우 개개인이 지닌 매력을 포함해, A팀은 보다 정돈된 연기 스타일을 선보인다면, B팀은 보다 풍부한 감정을 발산한다. 무엇보다 극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술인 역 배우가 서로 다른 느낌으로 연기하면서 극 전체의 색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배역이지만 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더블캐스팅의 매력이 「SS」에서도 잘 나타난다.

더블캐스팅을 가능케 하는 배우 풀, 새로운 연출자를 내세워 극단의 창작 작품을 재해석하는 시도, 여러모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시도이기에 새삼 예술공간 오이의 역량을 실감한다.

예술공간 오이는 연말까지 로맨틱코미디 세미 뮤지컬 「우연가동」, 4·3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연극 「4동 3반 복층 사건」을 공연할 예정이다. 제주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극단의 노력을 주목한다. 

연극 「SS」 작가 겸 배우 전혁준(예술공간 오이 공동대표)

정답 없는 인생, “스펙이 곧 나의가치는 아니다”

1. 「SS」를 소개해주세요.

「SS」는 스펙스토어를 뜻합니다. 운, 이해력, 자신감, 참을성, 심미안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교환하는 가게입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그런 공간입니다. 판타지적인 요소인 거죠. 그런 공간을 연극 무대로 가져왔어요.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죠.

2. 처음 선보였던 3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본을 크게 손보진 않았어요. 자잘한 대사들이 조금 수정됐죠.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년 전에는 공연을 밖에서 시작했죠. 배우들이 옥상에서 대사치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신 에필로그가 생략 됐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생략된 부분 없이 다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죠. 조명과 음향도 3년 전보다 풍부해졌고요.

3. 작가, 연출자로 작품에 참여하는 것과 배우로 연기하는 건 어떤 차이인가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는 극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생각하기보다 이야기가 가지는 힘을 믿고 쫓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죠. 써 놓고 보니 ‘연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제가 연출하고 있어요. (웃음) 「SS」는 배우로 참여해서 걱정 없이 연기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연출을 할 때는 최대한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결국 연기부터 조명, 음향까지 점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고 나중에는 무대 소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다른 연출분들은 더 프로페셔널 하게 하실 겁니다. 연출을 하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배우는 연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좋은 연기를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결국 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웃음)

4. 「SS」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는지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specification, 즉 명세서란 단어에서 스펙이란 말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놈의 스펙 좀 쌓아 보겠다고 죽을 듯이 달려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도 길이고 이 길도 길이고 또 다른 길도 있고 다 사람 사는 거잖아요. 대신 한번쯤 내가 쫓고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랐어요.

5. 예술공간 오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더불어 새롭게 옮긴 공간에 대해서도 소개 바랍니다.

예술공간 오이는 2011년 12월 12일에 만들어졌고 연극을 중심으로 예술을 하고 있어요. 창작극 위주로 하고 있고 7년 동안 창작레퍼토리가 1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밖에 전시와 음악 공연도 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이라는 이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일 년이 52주라서 일 년 내내 연극으로 불태워보자는 뜻도 있고 O₂, 산소 같은 공연을 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죠. (웃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뜻은 모음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인이 발음하기 쉽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중앙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올해 연북로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공연장도 넓어졌고 연습실도 갖추게 되었죠. 카페도 있는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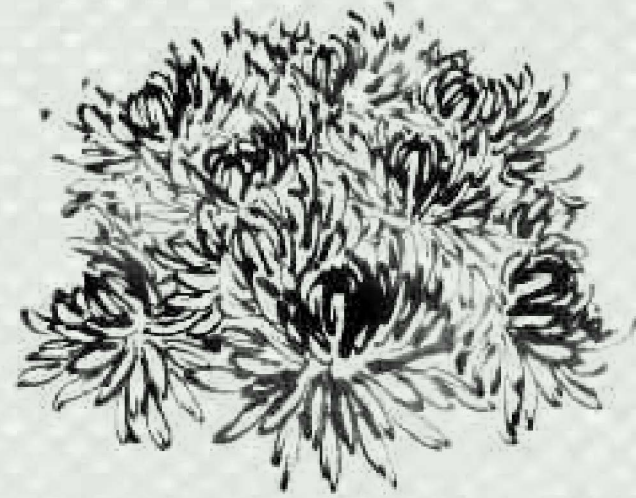
다양한 전시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6. 예술공간 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9년 계획이 있다면?

2018년에는 창작 작품 세 개와 예전에 했던 작품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작품 세 개, 이렇게 총 여섯 작품을 했어요. 4·3을 다룬 「4통 3반 복층 사건」도 매주 목요일마다 7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을 장기적으로 매년 4월에 기획공연으로 할까 생각중이에요. 새로운 창작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소극장에서 벗어나서 대극장에서 공연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확실한 건 끊임없이 공연을 만들고 관객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

숨으로 백년 동안

故문충성 시인을 기리며



글 김동현(문학평론가)

1.

모든 애도는 뒤늦은 후회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 죽음은, 환원 불가능한 이별이기에, 아프다.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죽음이 유일한 이별이자, 영원한 결별임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나'가 '나'로 태어나 '나'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 철저한 개별의 경험이 죽음이기에, 우리는 겨우 울음으로, 애도할 뿐이다.

우리는 한 때 몸으로 만나, 몸으로 기억을 나눴다. 기억은 그렇게 '나'와 '너'라는 개별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소환했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 당신을 만나 나와 당신이 우리라는 이름과 우리라는 기쁨으로 함께 불리고 기억되는 순간을, 세월 속에 지층처럼 새겨 넣은 적 있었다. 삶이란, 겨우, 그런, 가느다란 지층의 무늬를, 함께 쌓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그 나뉘는 대상이었던 하나의 신체가, 영, 원, 히, 소멸했다. 그 갑작스러운 소멸 앞에서 한 때 우리였던,

그리고 영원히 우리였을 거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우리들의 애도란, 그가 남긴 지상의 문장 하나를 씹는 일일 뿐. 그것 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 밖에 할 줄 몰라서, 아프고, 또 아프다.

2.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바다를 알 수 없다” 그가 세상에 던진 문장은 '제주'였다. 처음도, 마지막도 그의 문장은 '제주'였다. 그가 던진 '제주'는 '허상(虛像)의 거부'로 이해되었다. 그의 첫 시집 『제주바다』에서 해설을 쓴 김주연은 이를 “소박한 자연으로서의 제주바다, 그리고 시인 관념의 막연한 허상적 사물로서의 제주바다가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럴 만도 했다. 제주바다가



“원래 싸움터였다”라고 했던 그였다. 구체적 삶이 거세된 채 소비되는 제주를 그는 거부했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게 아니라, “어둠이 바다를 열었”고 “빛이 바다를 열었”다. 그것은 어둠과 바다, 바다와 빛의 “싸움”이었다. 그에게 제주는 단단한 실체였고 확신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 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텃땀땀 너와 나의 알몸똥이 유
년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하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빚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삶을 부여잡고 그는 써내려갔다. 제주에 발 딛고 살았던 삶들이 그의 시에서 하나씩 생명을 얻어갔다. 제주의 바다가, 돌이, 바람이, 나무가, 그리고 그 모든 섬에서의 삶이 그의 몸으로 태어났다. 22권의 시집. 쉽 없이 써내려간 그의

시력(詩歷) 안에서 그는 그만의 섬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시의 섬을 걷는다.

3.

“제주 섬에 태어나 수평선을 넘어본 사람은 안다 어디를 가나 제주 사람은 수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섬에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수평선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 저 선을 넘고 싶어서, 저 선을 넘지 못해서 섬은 좌절이었고 절망이었다. 섬사람들의 숙명이란 어쩌면 문신처럼 새겨진 수평선을 벗어던질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인지 모른다. 숙명이란 지독한 삶의 무게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는 그것이 섬의 운명이며 삶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숙명은 좌절의 숙명이 아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다. 수평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자각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수평선이 있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섬리의 긍정이다. 그가 수평선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섬을 거슬리지 않는 섬의 삶이 수평선의 숙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4.

“제주 섬엔 까치가 살지 않았다 바다 건너 몇 년 전 웬 신문사에서 까치 몇 마리 제주 섬에 살게 했다”

까치가 섬에 ‘이식’됐다. 한 신문사의 떠들썩한 이벤트가 있었다. 호들갑스러움을 시인은 견딜 수 없었다. “제주 섬엔 맹수들이 없었고 까치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없는 것이 제주 섬의 큰 자랑이었”던 제주였다. 까치가 제주섬에 오고 “관광호텔, 비행기, 자동차, 고스톱, 컴퓨터”도 “말하는 호랑이, 늑대, 이리” 들도 모두 사는 제주가 되어 버렸다고 시인은 탄식한다. 그 탄식의 의미를 우리는 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식’된 육망의 발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하던 제주를 ‘결여의 섬’으로 명명한 것은 물의 힘 있는 자들이었다. 제주바다를 싸움터라고 인식했던 시인이었다. “제주 섬엔 까치가 살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들의 제주가 아닌 섬의 제주, 섬사람들의 제주가 사라지고 있음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5.

“섬 하나가 문밖 감옥이었주마썸”
섬의 운명을 알았기에, 섬사람들의 제주를 지키고자 했기에



그는 결국 제주 4·3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생생한 기억을 지니고 있었던 그였다. 그래서 그는 썼다. “섬 하나가 문밖 감옥”이었다고. “건너가지 못하는 바당은 푸르당 버”렸고 “보는 사람 가슴까지 시퍼렇게 만들었”다고. 섬의 시선과 물의 폭력이 부딪히는 전장(戰場)이 바다였다. 그 시퍼런 바다를,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그는 시퍼런 아픔으로 기억해 낸다. 섬 하나가 전부 감옥이었고 섬 하나가 전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투박한 제주어로 이야기한다. “무싱거 마썸”이라는 단답형의 대꾸조차 불가능했던 세월, 제주는 길고 긴 감옥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무심한 듯 내뱉는 제주어가 아니면 이 무참한 세월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6.

“우리는 때로 우리를 토벌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였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라는 사실을 의심받지 않았다. 해방이 되고 미군이 진주하고 38선이 그어졌다. 식민지 백성이었던 우리는, 해방 이후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나없이 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명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니었다. 그들이 보기에 제주는 우리가 아니었고, 우리로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었다. ‘그들’이라는 호칭에는 ‘빨갱이’이라는 낙인이 함께 붙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로, ‘빨갱이’가 되어갔다. 그 공동체의 분열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토벌했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를 습격했습니까
제주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산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고
산간 마을들 불탔습니까 그 섬마을 사람들
총에 맞고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비록
그 비참한 삶이 지난 세기 1940~50년대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었기에 국민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니었기에 보호받지 못했다. 우리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죽어야 했다.

7.

그 공동체의 분열을 그는 “우리가 때로 우리를 토벌했습니까”라는 물음으로 아프게 보여주었다.

제주바다를 말하고, 제주바다를 그리워하던 시인은 세상을 떠났다. 남은 자들의 애도란 겨우, 그가 남긴 문장을 읽는 일일 터. 하지만 그 ‘겨우’의 힘이 결국 기억하게 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가 남긴 문장들이 그의 몸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오늘도 읽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애도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오늘도, 내일도 그의 시가 있는 한 우리의 애도는 계속 될 것이기에. 그리고 이제 수줍은 고백 하나 해야겠다. 당신이 만든 시의 숲을 함께 걸어서 행복했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인용된 시는 「제주바다 1」, 「수평선 2」, 「수평선 3」, 「제주 섬엔 까치가 살지 않았다」, 「섬 하나가 문밖」, 「우리는 때로 우리를 토벌했습니까」.

‘제주여성영화제’ 계절에 만난 영화들

간절히 내키는 ‘연대’의 손길...
‘미투’의 징후들

글 이정원(본지 편집위원)

영화로 기억하는 도시가 있다. 당장 부산과 전주가 떠오른다. 내게 5월은 전주의 계절이다. 10월은 부산의 계절이다. 이유는 알 것이다. 해마다 5월엔 전주국제영화제가, 10월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유례없는 폭염이 더위의 개념을 뚫고 고통에 다다른 8월 무렵, 윤홍경숙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10월에 여성영화제를 여는데, 단편 경선 작품인 「요망진 당선작」 심사위원을 맡아달란다. 폭염을 거슬러 맑고 청량한 음성으로 답했다. “아유, 그럼요. 저야 감사하죠.”

나중에 들었지만, 집행위원장은 내가 심사위원을 맡지 못할 거라 생각했단다. 여성영화제가 열릴 때, 부산에 가 있을 것 같았다고 솔직히 당황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며 ‘부산의 계절’을 떠올리는구나. 나만 아는 은밀한 정의가 아니었네?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티를 내고 다녔나?

집행위원장의 예상도 틀린 게 아니다. 부산의 계절을 누릴까 심하게 고민했다.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와 영화제가 맞닿아 있었으니. 만약 롯데 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면 어땠을까. 한 손엔 영화티켓, 한 손엔 야구티켓을 들고 부산 길바닥에서 어묵을 탐닉하고 있었겠지.

부산을 건너뛰고, 나에게 2018년 10월은 제주여성영화제의 계절이었다. 벌써 19회째. 말은 안 해도 집행위원회는 내년 20년 영화제를 어떻게 꾸릴까 벌써부터 머리 아플 거다. 부산·전주 같지 않은 척박한 지원과 상영 환경. 20년이 되어도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확신적인 확신. 반면 숫자의 상징성이 만들어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을 건네받은 사람들의 무게감. 여기에

또 하나 상징의 무게가 더해진다. 올해 초 한국사회를 휩쓴 #미투(MeToo). 일상으로 전진하는 페미니즘. 예상컨대 많은 감독들이 미투와 페미니즘을 녹여낸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을 거다.

영화제 20년과 미투, 페미니즘의 활기, 여러 갈래로 활발하게 솟구치는 상징과 기대, 영화적 도전과 상상력, 영감, 담론 등등. 내년 제주여성영화제는 이것들을 온전히 소화해 우리 앞에 축제의 결실로 비출 수 있을까.

본선 심사를 위해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 그 고민과 걱정이 사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렇다고 내가 여성영화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까. 장담 못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쌓이면 적어도 제주에서는 10월이 여성영화제의 계절로 만발하지 않을까. 올해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에서 만난 영화들을 이야기해본다.

‘연대’가 어려운 날카로운 현실의 벽

여성영화제 본선에 오른 한국 작품들을 통찰하는 주제 의식은 ‘연대’였다. 영화 속 여성들은 주로 고립돼있다. 손길이 절실하지만 어딜 가야 손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 방황한다. 점차 희망은 소진되고, 출구 없는 막막한 벽 앞에 가로막혀 주저앉을 위기에 처한다.

그런 여성들을 지켜보며 영화는 윤리적 판단을 한다. 극적으로 ‘연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연대’를 미루면서 ‘연대’가 어려운 현실을 고발할 것인가.

이번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우경희 감독의 「증언」은 후자의 위치에 놓여있다. 주인공 혜인은 중소기업 ‘유승정밀’에서 서무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해고된 지 2달째다.

혜인은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같은 팀의 유일한 여직원이던 오 대리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혜인에게 말을 건넨다. “혜인 씨,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오 대리는 과장으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오 대리는 폭력을 증언해달라고 혜인에게 부탁하지만, 혜인은 결정이 쉽지 않다.

「증언」은 서늘하다. 위태롭다. 답답하다. 「증언」의 여성들은 서늘한 자본주의와 위계적 권력의 토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위태로움은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분리의 장벽’이 된다.

「증언」은 그 위태로운 현실을 여성들의 삶으로 반영해 보여준다. 관객들은 「증언」의 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삶의 모순과 과제들을 객관적으로 사유, 성찰하게 된다. 또한 미투 이후 페미니즘이 ‘포스트 촛불’을 이끄는 중심 가치가



「골목길」(사진 출처: 제주여성영화제 블로그에서 발췌)



「신기록」(사진 출처: 제주여성영화제 블로그에서 발췌)



「증언」(사진 출처: 제주여성영화제 블로그에서 발췌)

되었지만, 일상의 가치로 나아가기까지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증언」은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 놓는다. 영화의 인물들은 만나고 의심하고 논쟁하고 공감대를 찾으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연대하고 그 영역을 조금씩 넓힌다. 연대의 희망도 낭만이나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연대'에 대한 카메라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른 상영작 이경호·허지은 감독의 「신기록」은 「증언」과 다른 위치에서 있다. 소진은 한겨울, 집 근처 운동장에서 경찰 공무원 체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운동장 한켠 철봉에는 현숙이 매일 매달려 있다. 소진은 현숙이 신경 쓰인다.

소진과 현숙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둘 모두 폭력을 겪고 있다. 소진은 데이트 폭력, 현숙은 남편의 폭력이다. 어느 날, 소진은 현숙에게 다가가 오래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현숙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속 매달린다.

「신기록」은 여성이 서 있는 일상 공간에 새겨진 폭력의 얼룩과 악순환을 조명한다. 그 얼룩은 번지고 번지며 취업을 준비하는 소진에게까지 이른다. '아파트'와 '운동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공유하지만, 연대와 정서의 공간은 공유하지 못하는 여성의 고립된 상황이 찬 겨울 공기에 실려 더욱 시리게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신기록」은 「증언」과 다른 결단을 한다. '턱걸이의 힘'이 남아있는 소진이 현숙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 폭력의 얼룩에 잠식된 현숙은 절망 속에 매달릴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태의 순간, 영화는 힘이 남아있는 여성이 힘이 없는 여성을 끌어올린다는 연대의 서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 입사 시험을 앞둔 「증언」의 혜인, 역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앞둔 「신기록」의 소진. 어쩌면 생존을 걸고 내린 두 여성의 다른 선택. 절박한 여성 현실 앞에서 영화의 윤리·정치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연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카메라는 무엇을 비추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연대'가 사라지면 일상은 불안과 공포가 된다

일상의 공간에 '연대'가 사라지면 그 공간은 낮은 불안과 공포로 채워진다. 더 큰 비극은 공간의 공포가 나를 시시각각 옥죄지만, 주변 사람들은 일상을 일상처럼 영위한다는

- 01 제주여성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사진
- 02 제주여성영화제





「자유연기」(사진 출처: 제주여성영화제 블로그, 네이버 영화에서 발췌)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공포를 모른 채(혹은 모른 척) 여성을 고립시킨다. 고립된 여성 역시 오랜 일상을 살아왔던 공간이었기에 공포와 불안이 옥죄다 한들 자신의 의지만으로 공간을 탈출하지 못한다.

영화제의 많은 상영작들이 여성 일상의 공간에 잠재한 불안과 공포, 낯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소개한 영화 「신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폭력의 얼룩이 잠식한 아파트를 탈출하지 못한 두 여성이 난간에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

오수연 감독의 「골목길」에서는 매일 걷던 골목길이 충격적 사건으로 공포와 불안, 낯선 공간으로 순식간에 변모한다. 여고생 은재와 문영은 방과 후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내는 단짝이다. 어느 날부터 문영은 은재와 함께 다니던 골목길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영은 은재에게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문영이 낯선 은재. 그 무렵 학교에서 레즈비언에 관한 소문이 돌리고, 은재는 문영을 떠올린다.

영화에서 문영은 물리적 공간에서나, 성(姓)적 공간에서나 '연대'가 필요하다. 공포의 공간으로 돌변한 골목길을 피해서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하다. 혼란한 성적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한다.

연대는 쉽게 이르지 못한다. 절친이지만 문영과 은재는 달라진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까 고민한다. 「골목길」은 '연대'와 '친구'는 아예 다른 개념임을 확인시킨다. '우정'은 연대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연대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극히 현실적인 정의와 실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 영화 속 남성의 의미와 '연대' 가능성

이 지점에서 '남성과 연대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번 상영작들은 대체로 남성과 분리된 현실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긴급한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 영화 플랫폼에서 남성은 여성 관객의 분노를 일으키고 연대를 실천하게 하는 긴장과 위기가 된다. 연대를 통해 돌파하고 극복해야 할 뿌리 깊은 사회적 모순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신기록」과 「증인」에서 폭력을 행하는 남자들, 「골목길」 역시 남자로부터 입은 성폭력으로 일상의 공간이 공포와 불안의 공간으로 돌변한다. 남자들과 대립은 사회 구조 모순의 축소판이라 할 '가족관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도영 감독 「자유연기」에서 주인공 지연은 배우다. 한때 연기를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부터 배우 일을 쉬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은 현재 배우로 일하고 있다.

아이 키우면서도 배우의 갈증이 일렁이는 걸 어쩔 수 없다. 어느 날 지연은 유명감독의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 아이를 돌봐줘야 오디션을 보러 갈 수 있는데, 남편은 바빠서 봐줄 수 없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맡기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대사 한 줄의 단역 오디션. 게다가 담당자는 자유연기까지 요구한다.

이 영화는 지연이 안톤 채홍의 소설 「갈매기」속 니나의 대사를 자유연기로 펼치는 장면이 인상 깊다. 지연은 니나의 대사에 자신이 처한 현실적 혼돈과 분노, 체념, 미련 등 복합적인 감정을 한껏 실어 관객들에게 표출한다. 이 역시 관객들에게 내미는 연대의 간절한 손길이다. 이 장면이 공감의 폭발력을 얻는 건 '모순 덩어리' 남성이 서사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8년 영화들은 2019년 미투 영화를 예견하는 징후였다. 남성이 부여하는 긴장과 위기는 2019년 여성영화제에서 더 크게 자리할 것이다. 미투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과 함께 남성의 현재 삶과 의미, 상징 등을 어떻게 펼쳐낼까. 남성과 연대의 가능성은 진전될 수 있을까. 2019년 20회 제주여성영화제의 계절이 더욱 기대된다. ●

지역출판물 전문서점 이아북스를 취재한 날은 마침 북토크가 있는 날이었다. 서점이 위치한 예술공간 이아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이아북스의 북토크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앞을 지나가는 데 포스터가 보여서 말이죠” 그녀는 장수명 동화작가를 무척 좋아한다면서 포스터가 눈에 띄길래 보았더니 시간도 맞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들어왔다고 했다.

이날은 총 세 번으로 기획된 북토크 중 두 번째로 「제주이야기」시리즈의 그림책을 낸 장수명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북토크는 이아북스 밖 카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장수명 작가는 초반의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관객 사이를 돌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느냐는 작가의 물음에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답했다. “여기 원도심이 내 고향이에요.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북토크를 한다면 들어와 봤지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던 북토크를 관람한 뒤 이번 북토크의 기획자이자 서점 운영자인 김경미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원도심이 고향이라고 했던 북토크 관람객이 일행들과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들은 무척 만족스러운 듯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서점 한쪽 구석에 놓인 탁자 위 흰색 커다란 꽃화분이 그녀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살짝 놀라는 듯했다. 그녀들은 들어온 김에 책을 몇 권 구입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서점을 나섰다. 그녀들이 떠나고 난 후 탁자의 흰 꽃화분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김경미 씨와의 일문일답.

옛 이아(二衙) 터에서 만난 ‘이아북스’ 지역출판물 전문서점

글 홍임정(제주작가회의 회원)

북토크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은 것 같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아복스는 일반 독립서점들과는 달리 '지역출판물 전문 서점'을 표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북토크도 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제주의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고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제주의 삶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선정 도서 역시 제주를 주제로 한 책들이다.

북토크에 선정된 책과 작가를 소개해 달라.

지난 8월 17일의 첫 시간에는 김순자 작가의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한그루, 2016)로 북토크를 진행했다. 사실 이때 내심 많이 놀랐다. 포스터, 현수막, SNS 등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많이들 오셨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첫 회만큼 관객이 많진 않았는데 그때는 카페 공간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었다. 여기는 저녁이면 조용해지는 동네인지라 북적북적한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좋았다.

두 번째 북토크는 장수명 동화작가의 「제주이야기」 시리즈 그림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수명 작가는 제주 태생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제주에 거주하며 제주를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열정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똥돼지, 돌고래, 추사 김정희 등을 다룬 「제주이야기」 시리즈는 제주문화의 맥을 찾아보자는 이번 북토크 기획에 딱 맞는 책들이다. 그뿐 아니라 제주 한동리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도깨비 대장이 된 훈장님』(한림출판사, 2008), 제주의 고유한 돌하르방을 소재로 한 『까만 코 돌하르방』(삼성비엔씨, 2005) 등 제주에 대한 장수명 작가의 애착은 각별하다.

북토크 중 제주도가 자신을 부른다는 작가의 말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다.

맞다. 그래서 탐라국의 건국설화를 쓰고 있다고 했다. 제주가 자신에게 내준 숙제인 것 같다고. 이렇게 제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가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북토크와 함께하는 책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순자 작가의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한그루, 2016), 장수명 작가의 「제주이야기」 시리즈(마주보기), 이성준 작가의 『해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각, 2018).

뿌듯하다. 11월 16일 마지막 북토크 시간에는 이성준 작가의 『해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각, 2018)과 함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아복스의 추천도서가 있다면?

나도 제주 태생이긴 하지만 사실 해녀에 대해 관심을 둔 적은 별로 없었다. 그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에 감탄한 정도였다. 그런데 이성준 작가의 『해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을 읽고 나서 해녀의 삶과 정신에 대해 정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라 더욱 공감하며 읽었다. 제주를 이해하는 데 책만 한 매개체는 없는 것 같다.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어 주는 것, 이것이 이아복스의 존재 이유기도 하다.

어린이 도서 중에서도 한 권 추천해 달라.

부복정 동화작가의 제주어 그림책 『드르에 불 낚 덩쌈똥』(한그루, 2018)이다. 최근 입고된 책인데 제주어로 쓰여 있는 게 특징이다. 보통 그림책은 아이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읽어주지 않나. 이 책은 내용도 재미있는 데다가 제주어로 쓰여있어 읽어주는 엄마에게도, 듣는 아이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제주어로 된 어린이책들이 더 많이 창작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아복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이아'의 뜻도 궁금하다.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예술공간 이아는 2017년 5월 13일에 개관했다. 조선시대 제주목사의 관아를 상아, 제주관관의 집무처인 찰미헌을 이아(二衙, 貳衙)라고 불렀는데, 이 터가 옛날 찰미헌이 있던 곳이다. 옛 지명을 사용해 예술공간의 이름을 이아로 지은 것이다. 2017년 12월 10일에 예술공간 이아 3층의 커뮤니티 공간 한켠에서 이아복스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이아복스의 크기는 7.8평의 작은 독립서점 규모이며, 지역출판물 전문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지역출판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주의 다른 독립서점과는 차별적인 것 같다.

그렇다. 이곳의 운영주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을 모아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제주뿐 아니라 춘천, 대전 등의 타 지역출판물들도 서가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구비도서 규모는?

보다시피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서, 많은 책을 구비해놓지는 못하고 있다. 총 1,300여 권 정도인데 제주 지역 출판물이 700여 권, 타 지역 출판물이 600여 권 정도다.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없어서 마음껏 입고를 할 수 없다. 열심히 판매를 하고 서고를 비워 다시 채우는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북토크도 서가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지역출판물 전문서점 이아박스

말하자면, 이아복스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책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곳일 텐데, 어려움은 없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주 출판사의 책이 제주 서점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서울의 유통사를 거치게 된다. 제주에 유통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제주 출판사들은 우선 책들을 서울로 보내야 하고, 제주 서점들은 서울의 유통사를 통해서 출판물을 입고하는 것이다. 제주의 공공도서관 및 각 학교들은 제주의 중형 서점들을 통해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결국 이것도 서울의 유통사를 거친다. 제주의 서점에서 구입한 제주 출판물들은 한 번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왔다고 보면 된다. 제주에 유통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제주 출판사들이 제주에서 유통할 책들을 도내 유통사로 보내고, 도내 각 서점 및 도서관들도 도내 유통사를 통해 제주 출판물들을 입고한다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주 출판사들의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독자들에게도 제주 출판물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유명 작가의 책이거나, 대대적인 광고를 한 책이 아닌 이상 서울의 유통사로 보낸다는 것은 제주출판사나 서점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 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아복스의 역할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아복스를 만든 것도 이러한 제주 출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하자는 뜻에서였다. 제주 출판물들을 통해 제주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가능한 한 제주 출판사들을 돕자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출판사들에 직접 연락해 도서목록을 받아 책을 입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규모가 작아 입고에 한계가 있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아까 말한 대로 제주에 일원화된 제주출판물 유통 창구가 있다면 지금처럼 각각의 출판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니 이아복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터에 옛 판관의 집무실이 있었다고 했나? 그렇다면 문화를 포함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땅의 운명인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아서점이 이 터에 자리 잡은 이상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 북토크 행사 진행만으로도 바쁘고 분주했을 텐데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문화예술街

12 December

11.17.(토요일) ~12.29. 우연가동 · 시간: 15:00, 19:00(매주 토요일) · 장소: 예술공간 오이	09(일요일) 사우스카니발 정규 2집 제작 및 창립 10주년 (제주문화예술발전회 문밖도르라) · 시간: 18:00 ·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화요일) 아마빌레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 시간: 19:30 · 관람료: 무료 ·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14(금요일) 제주본풀이 소리를 주제로 한 음악 이야기 · 시간: 19:00 · 관람료: 무료 ·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17(월요일) 파프르 보체 뮤직선물 · 시간: 19:30 · 관람료: 전석 1만 원 ·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19(수요일) 윤태형 클라리넷 독주회 · 시간: 19:30 · 관람료: 무료 ·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22(토요일) ~2009. 1. 13. 꼬마농부 라비 · 시간: 평일 10:30 주말·휴일14:00,16:00 · 관람료: 전석 1만 원 · 장소: 두근두근 시어터	23(일요일) ~12. 24.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 시간: 11:00, 14:00, 16:00 ·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4(월요일) 제6회 아르모니아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 시간: 15:30 · 관람료: 무료 · 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01.18.(금요일) 가족극 펭귄과 꼬마농부 · 시간: 10:10, 11:10 · 관람료: 1만 원~1만 5천 원 · 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02.15.(금요일)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11시 금요음악 산책 · 시간: 11:00 · 관람료: 무료 · 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02.17.(일요일)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 시간: 19:30 · 관람료: 무료 · 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상설공연 페인터즈 히어로 · 시간: 매일 17:00, 20:00 · 관람료: 40,000원~(좌석에 따라 다름), 제주도민 50% 할인 · 장소: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제주 난타 · 시간: 매일 17:00, 20:00 · 관람료: 40,000~60,000원, 제주도민 50% 할인 · 장소: 제주난타전용극장 4통 3반 복층 사건 · 시간: 매주 목요일 2018.05.31~12.27. · 관람료: 12,000원 · 장소: 예술공간 오이	01.31.(목요일)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2019 신년음악회 · 시간: 19:30 · 관람료: 무료 · 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 ~2019.04.30. 강태환: Gaps Drawing - 空間 /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2018.12.13.~2018.12.22. 온에어 잠녀 /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2019.01.13. 소장품으로 본 제주의 숨결 / 제주도립미술관 ~2019.01.31. 김미령 작가 개인전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 / ICC JEJU 갤러리 2018.12.19.~2019.02.20. 2018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 예술공간 이아 ~2018.12.31. 만능 흥정표 사진전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 / 산지천갤러리

※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간 새, 알바트로스. 쓰레기로 뒤덮인 제주 해안을 보면서도 알바트로스는 먼나라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도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들이 발견되곤 한답니다.

이번 『삶과 문화』에서 소개하는 ‘업사이클’이 모두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좌은영

짧은 글 쓰기도 겁나다. 어느새 발췌돼 공론장에서 재판 받는 시대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한국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꽤 인기있었다. 영화에는 캡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시대에서 대중들은 무엇을 그리워할까. 실패한 진심과 욕망도 맘껏 표출하고 거둬들일 수 있었던 시대. 내년은 실패를 스마트폰이 아닌 역사와 이성, 예술적 사유로 바라볼 수 있기를.

이정원

가을 끝자락, 떠나는 버스를 겨우 잡아 타듯이 그렇게 숲에 갔다.

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숲의 기운은 어느새 낯설다. 하늘을 향한 빈 나뭇가지들이 간절하게 두 손 모으는 노인을 닮았다.

계절마다 서둘러 새겨놓은 매일의 일상들을 떠올린다. 탈탈 털어내고 비워내는 가을 뒤에 오는 긴 겨울. 침묵 속에서 오래 이 계절을 읽을 것이다.

게으름 없이 이번 『삶과 문화』 겨울호도 읽을 거리가 푸짐하다. 뜨끈뜨끈한 국밥의 맛이다.

현순실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 포털서비스사업 예술을 향한 두드림 “ART KNOCK”



도내 청년예술가 참여자 모집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개인화된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 예술활동을 한 만 19-39세 청년

※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jfac.kr에서

문의 T. 064-800-9168/9169



www.jfac.kr